
고려중기 경주의 邑基 이전과 景觀

정은정

(부산대학교 사학과 강사)

머리말

I. 경주의 邑基 이전

II. 월성일대 도시기반의 활용·변용

III. 초기금성 방면 新邑基의 景觀

맺음말

- 본 연구는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과학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의 일환인 국내 POST DOC과제이다(과제번호:354-2011-1-A00007).
- 투고일: 2012. 5. 23. ● 심사일: 2012. 5. 24. ● 게재확정일: 2012. 6. 5.

요약

신라 왕도시절 통치의 핵심영역인 경주 都內는 고려 태조이래 邑內·外로 분리된 데다, 현종 3년에는 邑內를 중심으로 성곽을 축성하게 되었다. 당시의 축성은 현종 2년 동여진 침입에 대비한 방어차원이긴 하나, 차후 경주의 영역정비와 新邑基 건설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경주의 서북방면에 치우친 초기금성터에 읍기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월성일대가 舊邑基 지역으로 기능했다. 경주의 읍기가 월성방면에서 초기금성터 쪽으로 옮겨가는 양상은 발굴자료를 통해서 확인가능하다. 대체로 고려전기에는 월성일대에서, 고려중기 이후로는 초기금성터에서 관련 유물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현종 이후 경주 新邑基 건설은 성곽 축성 즉시 착수되지는 못했다. 경주세력의 제어와 공사 기일의 문제 등 제반 여건으로 인해 기존 월성일대의 기간시설물을 활용하는 절충 시기가 잠시 있었다. 이때 경주 舊邑基에 해당하는 월성일대 사찰과 재정·유통시설이 활용되었다. 문종 전후해서 경주는 점차 지방도회로서 국가가 강제하는 경관을 구축해 나갔다. 경주 신읍기인 초기금성터 주변으로는 강한 구심력을 보이는 資福寺와 客舍가 배치된 것이다.

新邑基의 관향은 외방관도와 배후촌락과의 통행을 참작해서 결정되었다. 경주 신읍기의 도로는 각 성문을 연결하는 십자형태로서 서북방면의 慶州道와 만난다. 경주도의 진행방향에 맞춰 인근의 속현도 신읍기 외곽에 차례대로 배속되었다. 또한 新邑基에서 서쪽·북쪽 방면으로는 통행편의를 위해서 細路가 신설되거나 자연 촌락의 생성이 두드러졌다.

경주 新邑基에서의 도로는 월성일대의 舊邑基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도로의 개설연한도 늦고 노폭도 좁은 편이다. 기존 왕경대로를 개·보수하던 차원과는 달리 新邑基 서·북쪽으로는 새로이 자연적인 ‘길’이 만들

고려중기 경주의 邑基 이전과 景觀

어진 것이다. 이들 小路는 이전부터 있어왔던 촌락과의 주요통로와 서북
방면에 신설된 촌락 사이의 연결을 긴밀히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요컨대 현종 3년 초기금성터 방면에 성곽이 始築되고 난 후 문종 전후
해서 경주 新邑基 지역은 국가차원의 권위체계 강제와 이에 추수하는 변
화로 인해 차츰 지방도회로서의 전형을 갖추게 되었다.

주제어 : 邑基移轉, 新邑基, 資福寺, 客舍, 細路

머리말

종래 경주에 대한 연구는 신라와 조선, 일제강점기의 광범한 시기에 걸쳐 다양한 시도와 접근으로 경주 왕경학이 성립할 정도의 방대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정작 신라 王都 경주가 고려시대에 어떻게 지방단위로 조정되는가에 대한 점검은 거의 전무하다.

최근에 기왕의 정치제도사와 군현정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려시대 경주연구¹⁾를 되짚으면서, 태조이래 경주의 군현합속 과정이 현종대의 계수관체제를 지향했다는 점과 현종 3년 경주 治所²⁾를 에워싸는 성곽의 始築³⁾을 계기로 이전 왕도시절의 경주 ‘都內’가 邑內·外로 분리되고, 이

-
- 1) 金皓東, 1982, 「高麗武臣執權 下에서의 慶州民의 動態와 新羅復興運動」 『民族文化論叢』 22 ; 김갑동, 1994, 「신라의 멸망과 경주세력의 동향」 『新羅文化』 10 · 11 ; 朴龍雲, 1997, 「고려전기 慶州의 위상에 대한 고찰」 『慶州史學』 16 ; 尹京鎮, 2001, 「慶州戶長先生案·舊案(慶州司首戶長行案)의 분석-1281년~1445년 부분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19 ; 金琪燮, 2006, 「高麗 太祖代 군현 개편의 과정과 그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21 ; 김창현, 2008, 「신라왕경과 고려도성」 『新羅文化祭學 術論文集』 29.
 - 2) 治所는 사전적으로는 지방관의 관청 내지 그것이 위치한 공간을 지칭한다(『漢語大詞典』 5, 1992, 1125쪽).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치소는 주·속현을 막론하고 邑司의 소재지역으로 파악하는데, 주현 치소는 읍사조직 위에 외관청이 병존하며 속현 치소는 읍사가 있는 곳으로 설정한다(최중석, 2005, 「고려시기 치소성의 분포와 공간적 특징」 『역사교육』 95 ; 2007, 「고려시대 治所城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201~202쪽). 물론 신라이래 각 지역에서는 읍사가 있던 기존 지점 위에 새로이 외관청이 중첩될 수도 있으며, 혹은 읍사와 외관청이 서로 원격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읍사는 주현 외관의 통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상호 접근이 용이하게 가까이 위치했던 것 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 3) 현종 3년 경주를 위시한 장주·금양·궁울산에 축성하기 직전 해에 동여진이 경주를 침입했다(『高麗史』 권4, 顯宗 2년 8월, “東女眞 百餘艘 寇慶州” ; 권82, 兵志2 城堡條 顯宗 3년, “三年 城慶州·長州·金壤 又城弓兀山”). 경주에서의 축성은 처음 동여진 침입에 대비한 방어목적에서 이루어졌겠지만, 이를 시원으로 차후 경주의 영역 정비가 한차원 진전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鄭銀禎, 2011, 「고려전기 慶州圍城 정비와 邑內·外 분리」 『韓國史研究』 154).

러한 두 정황을 배경으로 고려시대 경주가 지방도회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논고가 있다.⁴⁾

이 견해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왕도시절 통치의 핵심영역인 경주 都內가 邑內·外로 나뉘어졌다는 점이다. 신라하대 팽창된 都內 구간이 태조 이후 경주인의 사민과 귀부를 통해 이 지역의 인적·물적 재원이 빠져나감에 따라 이미 촌락화된 상황 위에, 태조후반 경주에 대한 본격적 정비의 일환으로 6部名 개정을 거치면서 경주 都內가 줄게 되었다.

축소된 경주 都內는 현종 연간 신라 초기금성터에 治所城⁵⁾을 始築함으로써 왕도시절의 그것에 비하면 규모면에서 더욱 위축되고, 이 무렵 성곽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촌락화된 지역을 읍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邑外가 되었다. 경주 都內가 현종대 마련된 치소성을 기준으로 邑內·外로 나뉘어진데다, 나머지 주변군현은 광역 任內로 조정됨으로써 차후 주속현 체제의 근간을 이룬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종전에 다루지 않던 현종 연간의 경주 치소성 始築과 그에 따른 영역재편을 다른 연구로서는 진일보한 의미가 있다. 고려시대 경주의 강역조정 등 군현정비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던 그간의 선행 연구성과를 큰 틀에서는 진전시켰지만, 치소성 시축 이후 지방도회로서 경주의 경관 변화양상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였다.

본 연구는 미루었던 과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현종대 경주 치소성

4) 鄭銀禎, 위의 논문.

5) 본고에서 治所城이라고 하는 표현은 최종석이 기 발표한 산성 개념은 아니다. 씨가 제기한 바와 같이 고려시대 치소가 산성에 위치할 경우 산성내부에 관아가 분포할 垆地와 용수 확보가 곤란하며, 거주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또한 향리층이 치소성 근방의 평지에 거주하면서 상시적으로 산성인 치소성을 오가며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에도 곤란하다. 고려시대 치소의 입지는 지역·지형별로 상이했을 것이며, 특히 경주의 新·舊治所 모두는 평지에 입지했다. 본고에서 치소성이라는 표현을 굳이 고수한 데는 다른 용어를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며, 최종석의 견해인 ‘산성읍치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始築을 기정사실로 인정한 바탕에서 차후 지방도회로서 고려시대 경주의 경관변화를 밝히려 한다. 그런데 앞선 연구에서 제기한, 현종 3년 옛 금성터에다 경주 치소성을 시축한 사실은 태조대 경주대도독부·성종대 동경유수부의 치소인 월성인근으로부터 邑基⁶⁾이전을 전제로 하며, 게다가 경주에서 신읍기의 형성과 새로운 경관 조성까지를 내포한다.

대부분의 치소이전은 정치·경제·군사적 측면 외에도 인구문제 및 용수부족 해결 등의 제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⁷⁾ 경주에서도 현종대 치소성이 신라 초기금성터에 새로이 마련된 사실은 월성중심 舊邑基

-
- 6) 최근 邑基와 관련한 연구가 속출하는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시대에 집중되어 있다. 려말선초 신읍기가 조산·진산과 같은 권위경관·풍수적 입지의 전형성을 갖추게 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이기봉·홍금수, 2000, 「조선시대 경상도 읍치 입지의 다양성과 전형성-고려말 이후 입지경향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3 ; 이기봉, 2008, 『조선의 도시, 권위와 상정의 공간-한국적 전통도시경관의 원형 탐색, 새문사 ; 2009, 「조선적 지방도시로서의 권위 표현과 읍치숲」 『문화역사지리』 21-3 ; 최원석, 2003, 「경상도 邑治 景觀의 鎭山에 관한 고찰」 『문화역사지리』 21 ; 2007, 「조선시대 지방도시의 풍수적 입지분석과 경관유형-경상도 71개 읍치를 대상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2-4 ; 김덕현, 2004, 「경상도 읍치경관 연구서설」 『문화역사지리』 22 ; 김현규, 2007, 「조선시대의 지방도시 읍치의 성립과 계획원리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51 ; 최종석, 2008, 「조선시기 鎭山의 특징과 그 의미-읍치공간 구조의 전환의 관점에서-」 『朝鮮時代史學報』 45 ; 2009, 「한국의 ‘전통적’ 邑治 경관의 창출에 관한 시론」 『역사교육』 112 ; 권선정, 2010, 「조선시대 읍치의 진산과 주산-대전·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2-2).
- 7) 김광철, 2008, 「고려후기 밀양지역 사회의 변동과 治所 이동」 『석당논총』 41 ; 2010, 「고려후기 거제 지역사회의 변동과 巨濟縣의 이동」 『석당논총』 46 ; 정요근, 2011, 「여말선초 군현간 합병·통합과 新邑治의 입지 경향」 『역사와현실』 80. 여말선초 신읍치의 입지선정 요인을 지리학계에서는 主山·鎭山의 설정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요근은 이 시기 주산 설정에 따르는 관향결정은 여기에서 배제된 나머지 50% 가량의 신읍치 입지를 설명하는 기준으로는 유효하지 못하며 외방관도와의 접근성·지형 요인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필자로서도 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고려중기 경주의 경우 이 무렵 주산개념의 이해가 완전하지 못한데다 경기 이남의 외방관도는 한창 정비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경주 신설읍기의 관향결정에서는 교통로와의 접근성 여부가 주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로부터 정치·경제적 요구에 상응하는 ‘邑基’이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경주의 균형정비와 정치사부문을 제외한 것으로는 일제시대 때 태조대의 경주대도독부를 언급한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⁸⁾

여기서 거론된 경주대도독부는 고려시대에 경주의 전체 관할영역이 신라 王都의 그것보다는 늘어났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일 뿐, 도독부 등 외관청사가 포진한 월성 중심으로부터의 邑基移轉에 수반되는 新邑基 구축에 애초부터 관심을 두지는 못했다. 물론 경주의 신읍기가 완비되는 과정에서 舊邑基 시설이 활용되거나 훼손되는 경관변화가 뒤따를 것이지만 이 역시 간과되어 왔다.

이에 필자는 기존 연구수준과 한계를 참작해서 먼저 1장에서는 현종 3년 경주 치소성 시축 전후 원도심으로 기능했을 월성일대로부터 차츰 신라 초기금성터 방면으로 읍기가 이전되는 사정을 밝힐 것이다. 읍기이전에는 외관청사의 이동이 전제가 되는데, 고려시대 경주의 읍기이전 문제에서도 외관청사의 소재 파악이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문헌사료에서는 경주 외관청사의 新·舊邑基 간 구체적 소재와 이동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보조적 수단으로, 여태껏 시도된 바 없는 경주유적 지구 내에서 고려시대 관아유구가 공반출토되는 사례를 적극 검토함으로써 고려전·중기 경주의 읍기이전을 구체화하려 한다.

그런 다음 2장에서는 현종대 치소성 시축 이후에도 신읍기 건설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월성일대 각종 왕도시설을 활용하는 절충과정이 있었음을 살필 것이다. 고려시대 경주가 지방거점 단위로 정비되어 가는 일정기간 동안을 왕도시절 월성의 도시상징체계·재정·유통의 기간시설이 활용·변용된 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다.⁹⁾

8) 이마니시류는 신라 王畿 내에 6회평 즉 6部가 존재하였고 영역은 고려초기 경주대도독부의 그것과 대략 일치한다고 보았다. 6部の 영역 즉 王畿의 범위가 오늘날 경주시 일원을 망라하였음을 밝히고 있다(今西龍, 1933, 「慶州見聞雜記」 『新羅史研究』, 近江書店).

3장에서는 월성일대 시설을 활용하던 고려전기와는 다른 차원으로, 초기금성터 방면에 신읍기 건설이 진작되고 지방도회 경관의 전형을 갖추어가던 양상을 구명하려 한다. 이때 문종 전후로 국가차원에서 경주 신읍기에 資福寺와 客舍 등 권위시설을 두고, 중앙인 개경과의 연결을 염두해 관향이 결정되었음을 살피게 될 것이다. 특히 경주 신읍기 바깥쪽 서북방면으로는 통행빈도가 반영된 때문인지, 기존 王京大路의 활용보다는 細路 신설이 두드러지는 데다 고려시대에 비로소 개척된 촌락이 집중하는 경향도 짚어보려 한다.

본 연구의 최종 지향점은 고려시대 경주가 지방도회로서 갖는 특징적 면모를 이전 王都 시설의 수용과 변용이라는 점에 두고, 景觀 연출코드를 읽어내는 데 있다. 경주의 新邑基 구축과 뒤이은 도시시설 변화라는 극히 제한된 시각적 접근을 계기로, 미흡하나마 고려시대 여타 지방거점 단위의 都會景觀도 유추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I. 경주의 邑基 이전

고려시대 邑基에는 통상적으로 관할지역의 통치기구와 중앙에서 파견되어 온 외관의 청사 및 읍사 기구가 공존한다. 읍기의 이전은 정치·경제적 혹은 생활용수 확보차원에서 기존 치소의 관아시설물과 敷地를

-
- 9) 경주 월성일대의 사찰과 제정·유통시설 중심으로 살피는 것은 신라시대 수도방위와 치안·환경위생시설 및 도시행정체제 등 왕경의 제반 관리시스템이 고려시대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려줄 만한 사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수도 개경 중심으로 국가적 권위체계와 물류센터가 이견되면서 자연히 전왕조 수도의 그것은 수렴되기도 혹은 훼손되어 갈 수밖에 없다. 신라 왕도시절의 도시상징체계 및 국가관할의 물류시설 존재 여부는 고려시대 경주의 변화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하나의 유효한 수단이 되어준다고 하겠다.

폐기하고 새로운 곳에 치소를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주목하는 고려시대 경주 新·舊邑基의 교체 및 이전 여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시야에 넣도록 한다. 먼저 외관청사와 관련해 고려시대 경주에 파견된 외관의 시기적 추이를 훑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시대 지방 관련 사료의 양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경주지역의 발굴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다수 경주관련 발굴자료의 분석은 왕경유적 분포와 분류에 집중해, 신라시대의 왕경영역과 도시화 진행방향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하지만 월성중심부 및 신라하대말 팽창되어가던 경주 왕경지구와 고려 치소성터가 승계된 것으로 여겨지는 조선시대 읍성지구 내에서 고려시대의 유물·유구가 공반되는 점은 간과되어 왔다.

신라시대를 제외하고 경주유적지의 공반출토 유물에 대한 검토가 담보적 상태인 데는 아마도 경주라는 지역의 특성상 신라왕경이라는 점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고려시대 이 지역 위상변화에 주목하지 못했던 요인이 클 것이다. 그러나 월성일대·치소성지구¹⁰⁾ 건물지 및 각종 유물 중에서 고려전·중기의 것이 성격을 달리하여 발견되는 사례를 꼼꼼히 따져 본다면, 실증적 부문에서도 고려시대 경주의 新·舊邑基 이전문제가 해명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태조 이래 경주에 두어진 외관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 경주의 외관으로는 都護府·都督府 외에도 東南海都部署使 및 후기의 慶尙道按察使를 들 수 있다.¹¹⁾ 태조 13년 고창전투에서 승

10) 본고는 전체 경주 왕경지구를 월성일대와 치소성지구로 구분하기로 한다. 초기 금성터 방향의 경주치소성 지구 역시 왕경영역에 속한다. 고려중기 이후 완비되어 가던 신읍기의 치소성지구와 대비적으로 구읍기에 해당하는 월성중심지인 궁성~북쪽문지구변과 이남까지를 포함해서 월성일대라는 한 범주로 묶어 서술하려 한다.

11) 『高麗史』 권57, 地理2 東京留守官 慶州; 『慶尙道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沿革; 『慶州先生案』 「東都歷世諸子記」; 邊太燮, 1971, 「高麗按察使考」 『高麗政治制

리한 후 경주에는 안동도호부가 설치되었다가 이후 광종 어느 시점엔가 안동도호부는 상주에 두어졌다.¹²⁾ 안동도호부는 성종 2년으로부터 同 14년까지 설치지역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성종 2년 12牧의 설치에 따르는 도호부 폐지와 변화과정의 일환이다. 성종 14년에는 도호부가 일괄적으로 지정되고 내륙중심에서 외곽이나 해안으로 위치가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다.¹³⁾

도호부 설치의 일반적 추이 속에서 안동도호부의 治所가 현종 3년 무렵에 상주, 고창군으로 옮겨졌다가 경주·금주로 재이전되었다. 현종 5년 安東都護府, 同 9년 慶州大都護府로 개칭, 同 18년 慶州牧¹⁴⁾으로 하였다가 同 21년에는 東京留守府로 재복구하는 등 경주의 제도적 부침은 이렇듯 빈번했다.¹⁵⁾

이상 안동도호부의 연혁과 치소는 태조 13년 고창군 → 태조 23년 경주 → 광종대 상주 → 성종 2년 폐지 → 성종 14년 금주 → 현종 3년 상주 → 현종 5년 경주 → 현종 9년 폐지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현종 9년 이후 안동도호부가 기록에서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도호부 존속 시기도 그때까지만 것으로 추정된다. 태조 13년 이후 고창·상주·경주 등지에 치소를 이동하면서 설치된 안동도호부는 상시적인 것이 아닌 임시적 관사이다.

현종대까지 경주에는 도호부의 치폐가 잦다가 문종 연간에는 주로 대일본관계를 맡은 水軍관서로서 東南海都部署가 설치되었다.¹⁶⁾ 東南海都

度史研究』, 一潮閣, 178쪽.

12) 『高麗史』 권57, 地理2 慶尙道 安東府 ; 『高麗史節要』 권1, 太祖 13년 1월.

13) 김아네스, 2002, 「고려 초기의 都護府와 都督府」 『歷史學報』 173 ; 윤경진, 2009, 「고려초기 지방제도 개편과 都護府-安東·安南의 置廢와 移動」 『한국중세사연구』 27, 179~185쪽.

14) 慶州牧에 대한 기록은 『高麗史』 등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慶州先生案』 「東都歷世諸子記」에만 찾을 수 있다.

15) 『高麗史』 권57, 地理2 東京留守官 慶州.

16) 『慶尙道地理志』 慶尙道 沿革에서는 東南海都部署使는 태조 22년에 始置된 것이

部署使는 경상도안찰사를 겸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慶尙道按察使本營은 대다수 시기 동안을 경주에 있었으나, 한때 금주로 옮겨졌다가 우왕 2년에 경주로 환치된 것으로 보인다.¹⁷⁾

이처럼 경주의 외관은 都護使와 按察使·東南海都部署使 등이다. 도호부는 현종 9년부터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데 문종 3년 이후에는 안찰사영·동남해도부서사가 이를 대체한다.¹⁸⁾ 이후로는 고종·충렬왕대 명칭강등 기사 외에 경주의 외관직 관련사실을 알려줄 만한 이렇다 할 기록이 없다.

외관직 외에 이들의 官舍에 대해서도 『慶尙道地理志』와 조선시대 각종 地理誌에서 경주에 두어졌다고 통상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사료를 통해서는 외관청사가 경주치소 新·舊邑基의 구체적 어디인지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따름이다.

사정이 이러하듯 문헌사료 상으로는 외관청사의 이동과 그에 따르는 邑基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도 실은 까다롭다. 좁은 의미에서 읍지는 읍치소 즉 관아건물의 소재지로서 반경 5~10리 정도를, 중간적 의미로는 관아

라 하고, 『慶州先生案』 「道先生案」에서는 戊午年(문종 32)에 그 本營이 경주에 설치된 것으로 전한다. 『高麗史』 권77, 百官2 外職 按廉使條에서는 문종 18년에 都部署를 안렴사로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

- 17) 태조 22년 東南海都部署使 本營 慶州 始置 → 金州, 문종 32년 東南海都部署使 本營 金州 還 → 명종 20년 東南海都部署使 本營 罷 → 신종 5년 還 → 충렬왕 19년 罷 → 공민왕 17년 還 → 신우 4년 罷. 東南海都部署使 本營은 태조 때 경주에 始置되었다가 금주로 옮겨져 혁파를 거듭하였다. 그런데 慶尙道按察使는 東南海都部署使가 겸임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慶尙道按察使營은 東南海都部署使營이 있었던 慶州와 金州 사이에 교대로 환치된 듯하다(『高麗史』 권57, 地理 2 東京留守官 慶州; 『慶州先生案』 「道先生案(慶尙道營主題名記序)」; 「東都歷世諸子記」; 변태섭, 앞의 책, 178~179쪽).
- 18) 『慶尙道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末王金傅降附於高麗太祖 以國都爲慶州 天福己亥 改爲安東都護府 邑號慶州司 始爲東南海都部署使本營...顯宗時祥符壬子 改稱慶州防禦使 甲寅後爲安東大都護府...” ; 『慶州先生案』 「戶長先生案」, “壬辰春夏等 按察使 韓沖 秋冬等 崔資成 是年 改都部署使 爲按察使”.

와 연속된 읍취락을, 넓은 의미로는 읍치소와 가까운 근교·촌락까지를 포괄하는 소위 邑内面 영역을 지칭한다.¹⁹⁾ 읍기를 행정·촌락·경관인식의 어떠한 잣대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범주가 달라진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읍기이전 여부와 신읍기 구축을 살필 때의 邑基 개념은 읍치소 관아시설이 분포하는 행정중심지 정도로 좁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邑基를 행정공간으로 특화시켜 볼 때, 읍기이전은 舊置所의 핵심적 관아시설이 훼손되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뜻한다.

경주에서도 현종 3년 신라 초기금성터에다 치소성이 시축된 사실은 기왕의 관아시설이 분포했던 월성일대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치소시설이 移建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때 임시관사인 도호부·도독부 등 외관청사와 문종 전후 경주에 본영을 둔 東南海都部署使 및 按察使營이 경주의 新·舊治所 간에 소재가 상이할 것은 짐작된다.

경주에 두어진 외관청사의 소재과약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고려시대 치소성과 내부 배치시설이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치소성은 주·속읍을 망라하고 축성되는데, 主邑의 경우는 종래의 읍사조직 위에 외관청이 부수되는 형태였다. 성종대 동경유수부 역시 기존 읍사조직에다 主邑의 관격에 맞게 외관집무와 관련한 각종 시설물이 병치되었다. 동경유수부에는 외관청이 설치되고, 외관 파견에 따르는 居所로서 府治 안에는 각종 관아시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발굴성과상 고려전기 동경유수부 등의 외관청사 소재지는 경주 왕경지구 가운데서 월성일대의 관아거리²⁰⁾에 덧입혀졌을 가능성이 상

19) 도도토키 히로시, 2005, 「조선시대 읍치의 영역성에 관한 일고찰-경상도를 사례로」 『지리학연구』 39-1.

20) 신라하대말까지 경주의 왕경영역은 처음 월성 주변에서부터 월성북쪽으로 확대된다. 월성북쪽 방면으로는 11개 정도의 문지가 확인되는데, 이는 신라하대 확대된 왕경의 관아지구로 추정된다(전덕재, 2009, 『신라왕경의 역사』, 새문사, 216~218쪽).

당히 높다. 소략하나마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로서 왕경지구인 월성중심부와 이후 확대된 월성북쪽 문지주변에서 고려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관아시설의 흔적을 꼽을 수 있다.

일단 신라왕경의 도시화 진행방향과 시기는 6C 월성과 그 이남 → 7~8C 월성북부 → 9C 경주 치소성터 방면이다.²¹⁾ 별첨 【표 1】에서 확인되듯 황룡사지·인왕동·황오동 330번지 등 비교적 이른 시기인 6세기에 신라왕경에 편입된 지역이나, 8세기 후반에 도시화가 진행된 사장동·석장동·동천동 등지와 신라하대말에야 왕경으로 편입된 치소성지구 모두에서 신라~조선의 유물이 함께 찾아진다.

경주 全域에서 신라~조선의 모든 시기를 망라하여 생활유물이 두루 출토되기 때문에, 시·공간적 구분에 따르는 특정유물의 편향적 분포를 가려내기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한편 고려시대 경주전역에서 발견되는 유구 가운데 읍기이전과 결부지어 주목해야 할 것으로는 관아 관련한 유물이다. 대체로 대규모 柱穴址, 동물형·화문형 벼루²²⁾, 印章, 관아에서 사용되었음직한 명문 자기·기와 등은 그곳이 관아터임을 입증하

-
- 21) 황보은숙, 2008, 「신라왕경의 도시적 발달」 『新羅文化』 32 ; 2008, 「월성 이남의 신라왕경 확장」 『慶州史學』 28.
- 22) 동물·화문형 벼루 중 석질이 정선되고 수법이 정교한 경우는 궁중용이거나 官의 주문제작일 가능성이 높다. 陶硯은 사찰이나 관아지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된다. 통일신라시대의 벼루는 원형연이 다수이며 고려시대 벼루는 箕文形이나 風字形이 주를 이룬다. 벼루에 대한 연구는 다음이 참고된다(권도홍, 1990, 『벼루』, 대원사 ; 이은영, 1994, 「한국벼루 문양에 대한 고찰」, 인천대석사논문 ; 이경노, 1996, 『문방사우』, 대원사 ; 장세환, 1999, 「벼루에 대한 소고」 『京畿道博物館』 ; 孫源祖, 2001, 「한국벼루의 문화예술적 性向에 대한 고찰」 『慶州文化論叢』 4 ; 李姬善, 2002, 「利川 雪峰山城 出土 咸通銘 벼루 연구」 『文化史學』 18 ; 박영미, 2004, 「문방사보의 고찰-먹의 제조와 용묵법을 중심으로」, 경기대전통예술대학석사논문 ; 허인경, 2008, 「문방사우의 연구」, 홍익대석사논문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高麗靑磁 寶物船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도판』. 한편 벼루를 포함한 전근대의 필기구는 획일화된 규격품으로 문서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율령 국가 지배의 도구로서 생산과 소비를 국가권력이 장악한다(宮瀧交二, 2002, 「日本古代の筆記具と權力」 『歴史評論』 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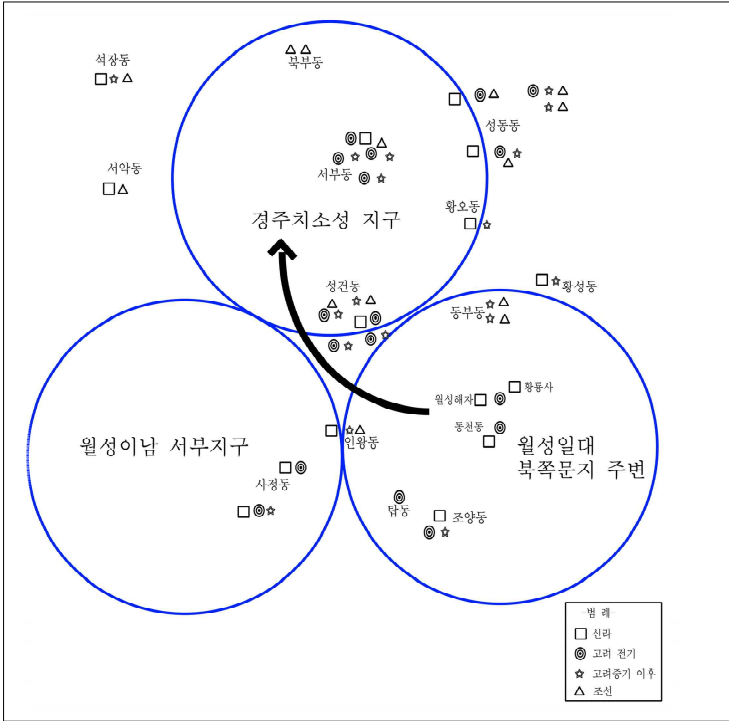
는 자료가 된다. 하지만 경주 전역에서 현재까지는 고려시대 벼루나 印章²³⁾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각종 건물지에서 고려전기의 어골문기와 · 햇무리굽청자, 중기이후의 것이 분명한 어린문기와 · 상감청자²⁴⁾ 등의 출토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시기적으로 월성일대에서는 고려전기의 유물이, 치소성지구에서는 고려중기 이후의 것이 빈번히 출토되는 대강의 사실을 **【그림 1】**을 통해 재차 확신할 수 있다. **【그림 1】**은 별첨 **【표 1】** ‘경주 왕경지구 내 공반출토 유구 현황’을 참고로 작성한 것으로, 경주 전역에 출토된 고려시대 관아유물의 시기적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점을 찍어 본 것이다.

23) 印章은 邑司의 首戶長과 外官직 모두 소지한다. 다만 邑司의 首戶長이 印章을 소지하는 경우는 掌印이라 표현한다. 만약 고려시대 경주의 印章이 발굴된다고 하더라도 읍사의 것인지, 외관청사의 것인지 구분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고려시대 외관청사는 대체로 기존 읍사조직 위에 중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이다. 경주의 경우 공민왕대 기록이지만 邑司의 上戶長이 掌印하여 문서행정을 담당했다고 전한다(『慶州先生案』 「慶州司首戶長行案序」, “...近來 上戶長姓名乙 科科以推考 行公次等乙用良 具錄于后爲臥乎事是等 今後之良 上戶長姓名 乃四祖 掌印年月 并以施行 傳於后生 幸甚...”; 윤경진, 2000, 「高麗 郡縣制의 構造와 運營」, 서울대박사논문, 207~208쪽, 216쪽).

24) 고려전기의 햇무리굽청자와 중기이후의 상감청자 등은 일상적인 건물지와 취락 분포를 증빙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희소성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출토지역은 일반적인 주거지는 아닐 것이며, 사찰 외에도 관아시설에서 주로 출토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는 대부분의 견해가 일치한다(김성식, 2012, 「연자도 유적을 통해서 본 고려중 · 후기 울산지역 취락의 이해」 『유적과 유물로 보는 고려시대 경상도 지역문화』, 한국중세사학회 · 동서문물연구원 학술발표대회, 30~33쪽). 따라서 경주에서 고려시대 관아유구를 핵심적으로 증빙할 벼루나 인장 등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감청자의 출토사례는 관아시설임을 지지하는 보조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설상 이들이 관아유구의 증거물이 될 수 없고 단순히 관아주변에 포진한 건물지 관련한 유물이라 해도, 앞서 잠시 언급한 넓은 개념으로서 ‘읍기’의 이전 여부를 파악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본다.

【그림 1】 고려시대 경주의 읍기이전 모식도



위 【그림 1】에서 보면, 고려시대 유물의 분포는 월성 중심과 북쪽 문지 주변으로부터 신읍기의 외곽 접경에서 전·중기 유물이 중첩되다가, 고려중기 이후에는 치소성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을 찾을 수 있다. 유물의 밀집현황은 고려전·중기에 걸친 읍기이전 여부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경주 왕경지구에서 서쪽 읍성방면인 동부동·서부동·북부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으로서 城內洞에는 신라 이전의 건물이나 寺址 등은 지금껏 출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신라하대말에 와서야 해당지역이 왕경영역에

편입되었음을 시사한다. 대신에 경주 신읍기터로서 치소성이 구축된 서부동과 성동동 일원에서는 여러 정황상 고려중기 이후로 추정되는 관아터가, 북부동 일대에서는 北門址로 추정되는 유구 등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²⁵⁾ 경주 치소성지구의 유물현황은 대체로 고려중기 이후 관아건물지가 월등하다고 하겠다.

요컨대 월성핵심지구와 확대된 왕경구간·읍성지구 모두 고려시대의 생활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월성핵심부와 북쪽문지 주변으로는 고려전기의 관아건물지가 확인되고, 읍성지구에서는 고려중기 이후의 관아유구가 공반 출토된다. 월성중심과 북쪽방면의 왕도시절 관사시설을 고려전기에도 활용했던 것으로 舊邑基라 할 수 있으며, 옮겨간 신라 초기금성터방면을 新邑基 자리로 간주할 수 있다. 이때 문종 이후부터 東南海都部署司·慶尚道按察使營의 외관청사는 현종 3년 새 치소부지로 택해진 초기금성터에 입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II. 월성일대 도시기반의 활용·변용²⁶⁾

-
- 25) 城內洞은 고려태조가 경주 6部名을 개칭할 당시의 中興部로 읍성과 관아시설이 집중된다(김태중, 1990, 「경주시 城內洞 마을유래」 『항토사연구』 2,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 慶州郡, 1990, 『慶州郡史』 3편, 154쪽).
- 26) 월성일대를 궁성중심, 월성이남, 월성북쪽 문지주변 등으로 구분해서 왕도시절, 고려전·중기 이후 중첩되는 유물을 보다 짚개어서 살펴야 할 것이다. 월성중심~북쪽 문지부근에 고려전기 관아시설이 일부 확인되는 것으로, 이 지역이 舊邑基가 된다. 본고의 주제상 구읍기지역에서 왕도시절의 도시시설을 활용·변용하는 사례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발굴되는 이 일대 추정 공공시설물을 구체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필자의 능력 밖이다. 부득이하게 월성일대라는 다소 애매한 범주화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월성일대 곳곳에서 고려전기 이후 지방향리층 이상이 소지할 상당수준의 유물이 산견된다. 이러한 정황은 고려중앙정부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왕경으로 개발되어 경주세력의 재지적 뿌리가 약한 초기금성터 방면에 신읍기를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경주치소성과 신

고려시대 경주 월성일대는 신라왕도시절의 원도심이다. 여기에는 정연한 도시구획 아래 신라왕도를 지탱하는 각종 도시행정·재정·유통시설이 입안된데다 경주 신읍기 건설이 일단락되기 전까지는 왕도의 각종 도시시설이 고려시대에도 적잖이 활용·변용되었다. 고려시대 얼마동안을 월성일대 왕도건물과 敷地가 유지된 요인은 일차적으로 태조이래 경주의 제도적 부침이 맞물려 있다.

주지하듯 경주는 태조대 군현합속 이후 현종 3년 치소성 始築, 同 9년 주속현을 재편함으로써 계수관체제 하의 여타 일반지역과 마찬가지로 영역재편이 시도되었다. 또한 경주는 三京을 구성하는 副都의 하나로, 문종·숙종연간 남경개발이 가중되어 三京制에서 탈락되는 과정에도 巨邑으로서의 실질적 위상은 이어졌다.

이는 현종대 경주에 대한 제어책의 일환으로 同 3년 치소성이 새로이 마련되었어도 국가권력이 한꺼번에 신읍기를 구축하기엔 힘들었음을 내포한다. 거기에 초기금성터 주변은 신라하대말 비교적 늦은 시기에 도시화가 진행된 경주 도시민의 거주구역이다. 현종 전후 새로운 행정중심지로서의 이곳에 신읍기 터전을 다지려면, 기존의 영역을 정리하고 관아시설물과 敷地를 신축해야 하는 상당기일이 소요될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이렇듯 경주를 둘러싼 정치제도적 요인, 신읍기 구축에서 工期 문제 등 다양한 탓으로 현종대 경주 치소성을 시축하고도 얼마동안 월성일대 기간시설의 훼손과 활용이 함께 이루어진 듯하다.

그 일례로 경주 南宮之印 기와가 출토된 월성중심부에서는 고려전기에는 기존 건물지를 활용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조선시대에 와서야 관련 유물이 발견된다.²⁷⁾ 또한 고려전기의 경주관아와 관련한 직접

읍기 조성을 검토한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2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 『월성지표조사보고서』; 2010, 『경주 월성 기초 학술조사 보고서』 I.

적 유물로서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월성해자에서 고려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뿔개돌이 발견되었다.²⁸⁾ 이는 고려전기에 월성의 정궁시설 일부가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물론 신라 왕족의 고려귀부에 따라 월성이 공백화되면서, 고려시대 이 지역에 계층적 층위와는 별개로 생활유적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월성해자 주변에서 관아에서 소용되었을직한 햇무리굽청자 등이 출토되는 사례를 감안한다면,²⁹⁾ 이 방면이 고려전기에 경주의 舊邑基로 기능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상 고려전기에 전 王都 통치행정의 중추인 월성 정궁시설에 대한 훼손을 시도했어도, 전면적 폐기보다는 시설물 일부를 활용하고 있다. 월성일대 시설을 고수한다는 상징적 정치태도를 취함으로써 경주세력의 거부감을 잠재우고 일시적으로는 통치행정의 편의를 도모한 것 같다.

고고학 발굴성과 외에도 한편에서는 왕도시절 월성일대의 도시상징·재정·행정·유통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첫째, 왕도시절 월성일대 사찰은 고려전기 개경의 수도정비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사원의 격이 유지되었다. 알다시피 태조는 건국 후 다른 지역거점과 마찬가지로 경주에도 비보사찰을 지정해 두었다. 대체로 월성인근의 사찰은 고려전기에 寺勢가 컸고,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불교행사의 설행 등 국가적 관심이 두어졌다.³⁰⁾ 황룡사³¹⁾는 현종 3년 경

28) 우물뿔개돌은 승신전지에 위치한다. 안상과 복련이 잘 조각된 방향의 개석으로 기단석을 재가공하였다. 뿔개돌의 바깥면을 고르게 장식하고 우물과 통하는 내면을 거칠게 다듬어 놓았다. 이 우물뿔개돌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기단석의 중앙부분을 도려내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국립경주문화재 연구소, 2004, 앞의 책, 95쪽).

2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6, 『신라왕경유적 발굴조사』, S30E1 90수혈지에서는 10세기경으로 추정되는 唐 백자편이 출토되었다. 또한 동천동 7B지구에서도 7세기에서부터 13세기에 걸친 생활유물이 공반출토되었다.

30) 신라시대 경주 왕경소재 사찰의 규모와 수치를 검토한 선행연구가 있으나, 고려시대까지의 치폐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인철은 왕경의 사찰을 96개 정도로, 박방룡은 97개로서 그 중 위치 파악이 가능한 51곳, 조선조까지 잔존한 사찰

주 朝遊宮을 헐어 그 재목으로 탑을 보수³²⁾한 데 이어, 현종 원년 탑을 수축한 후 숙종대 鑄鐘이 이루어지고³³⁾ 예종대에도 중수하면서 낙성식이 거행되었다.³⁴⁾ 황룡사는 고려전기까지도 지속적으로 국가의 관할 속에 있었다.³⁵⁾

월성 이남의 낭산사록에 위치한 사천왕사에서는 문종 28년에 문두루도량이 배설되었다.³⁶⁾ 이후 사찰 부근에서 발굴된 銘文瓦에서 사천왕사의 중수를 확인할 수 있는 ‘四天王寺己巳銘重修瓦’가 출토되었다. 사천왕사명 기와의 편년은 10~11세기로 추정된다.³⁷⁾ 명문의 己巳年은 각각 顯宗 20년, 宣宗 6년, 毅宗 4년으로, 사천왕사 중수의 정확한 시기를 단정지

로서 19개를 들었다. 김복순은 104개로 파악하였다(박방룡, 1998, 「신라 都城 연구」, 동아대박사논문, 133~161쪽; 1999, 「신라왕경의 사찰조영」 『미술사학13』, 115쪽; 이인철·진성규, 2003, 『신라의 불교사원』, 백산자료원, 258쪽; 김복순, 2006, 「신라왕경 사찰의 분포와 체계」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7). 본고에서 경주소재의 사찰을 모두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비보사원 정도로 제한해서 검토하였다. 이때 경주지역 내에서 전체 비보사원을 알 수는 없지만 『三國遺事』 등에서 고려태조대 제정적 지원을 받은 사찰은 다수 확인된다. 월성 일대 사찰 가운데서는 황룡사·사천왕사 외에 중생사·천룡사·유덕사·돌백사 정도는 비보사원이 분명해 보인다(『三國遺事』 권3, 塔像4 天龍寺; 有德寺; 三所觀音 衆生寺; 권5, 神呪6 明朗神印 埃白寺, “柱貼注脚載慶州戶長 巨川母…太祖上京隨駕焚修賞其勞給二人父母忌日寶于 埃白寺 田畝若干結云則 廣學 大緣二人隨 聖祖 入京者…”).

- 31) 『慶州邑誌』 권3, 佛宇 黃龍寺, “…在月城東 九黃里”.
- 32) 『高麗史』 권4, 顯宗 3년 5월.
- 33) 『三國遺事』 권3, 塔像4, 皇龍寺鍾 芬皇寺藥師 奉德寺鍾, “…肅宗朝 重成新鍾 長六尺八寸…”; 『高麗史』 권10, 憲宗 1년 8월 甲申.
- 34) 『高麗史』 권12, 睿宗 1년 3월; 권93, 列傳6 崔沆.
- 35) 黃龍寺는 점차 寺勢가 약화되어 고려숙종 이후 더 이상 중수나 행차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12세기 경에는 퇴락해졌고, 그 후 몽골침입으로 완전히 잔폐하였다(『甫閑集』 권(上), “…黃龍寺羽花門 是古仙徒所創 風物荒涼 過者無不感傷 學士胡宗旦乘使輅 過其門 見進士崔鴻賓留題 古樹鳴朔歎…”; 『慶州先生案』 「東都歷世諸子記」).
- 36) 『高麗史』 권9, 文宗 28년 7월.
- 37) 유환성, 2007, 「나말여초 경주 출토 사찰명 평기와 연구」, 경주대문화재학과석사논문.

을 수는 없다. 하지만 고려전기에도 경주 사천왕사에서 국가불교행사가 치러지고 중수된 만큼 국가적 배려 속에 있었음을 알 수는 있다. 황룡사·사천왕사는 寺勢가 고수된 경우이다.³⁸⁾

왕도시절 월성 기준해서 남북방면 도시화의 시기 간 격차를 차치하고, 월성일대에 분포한 사찰은 고려전기에도 도시상징물로 활용된 셈이다. 하지만 현종 3년 경주 치소성 시축을 얼마지난 同 12년 경주의 창립사·고선사가 소유한 金羅袈裟·佛頂骨·佛牙 등을 개경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³⁹⁾ 예종대 경주 東華寺 패쪽을 개경궁궐로 들이는 등⁴⁰⁾ 고려 전기에 월성일대 사찰을 사상적 구심력으로 활용하면서도 그 위세를 낮추려는 노력도 함께 했던 것이다.

둘째, 신라 왕도시절 월성일대 각종 창고도 고려건국 후에 경주 舊邑基의 창고시설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원래 신라 왕도의 창고는 6세기 전후 왕실직속창고와 국가가 관할하는 외방의 公倉으로 분화되었다. 왕실직속창고는 신라 8세기 무렵에 내성산하로 두어지면서 다수가 월성중심으로부터 확장된 왕궁의 관아거리에 위치했다.⁴¹⁾ 고려로서는 국가적 재

38) 월성일대 사원이 고려전기에도 여전히 寺勢가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여럿 있다. 굴불사에서 고려시대에 중수가 확인되는 청동반자 명문이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 1986, 『굴불사』, 167~174쪽). 경주 남산 용장사에서는 ‘太平二年八月’ 명문이 발견되었는데 연대는 977년이나 1022년으로 추정된다(朴洪國, 1998, 「慶州 南山 茸長寺址 磨崖如來坐像의 銘文과 造成年代」 『慶州史學』 17). 김인문의 원찰인 傳仁容寺址에서 출토된 목간 바로 위에서 10세기로 추정되는 햇무리굽청자가 출토되었다(채무기, 2002, 「仁容寺址 三層石塔과 寺名의 傳承」 『慶州文化論叢』 5 ; 이재환, 2011, 「傳仁容寺址 출토 ‘龍王’ 목간과 우물·연못에서의 제사의식」 『목간과 문자연구』 6).

39) 『高麗史』 권4, 顯宗 12년 5월.

40) 『三國遺事』 권4, 義解5 心地繼祖.

41) 만파식적을 보관한 곳은 월성의 천존고방·내황전 등이며, 귀비고 역시 왕실御庫라는 점에서 월성부근에 소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三國遺事』 권1, 紀異1 延鳥郎細鳥女, 貴妃庫 ; 권2, 紀異2 萬波息笛 ; 권2, 紀異2 元聖大王). 대체로 신라 왕실직속 창고는 월성부근이나 차후 확대되어간 월성북쪽 11개 문지 주변에 분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이인철, 1993,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63~77쪽 ;

정운영체제 및 지방단위의 창고시설 정비와 재정을 수습하기 전까지는 기존 소재지의 창고부지와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이미 성종 2년 지방관아에 公廩田柴가 지급되고 同 12년에는 주부군 현에 公須柴地를 지급한데다,⁴²⁾ 현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향리직제의 개편이 시도된 바 있다.⁴³⁾ 그런데도 경주세력의 제거가 어려운 상태에서 邑司에 포진한 이들의 기반을 전면 장악하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았을 터이다. 이로 인해 경주 신읍기 건설이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는 문종 이후에 가서야 신치소 지구에 창고가 두어졌다고 짐작된다.⁴⁴⁾ 적어도 경주 월성일대 관아거리의 창고부지와 시설은 현종 이후에도 한동안 경주 구읍기의 그것으로 대체된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⁴⁵⁾

박방룡, 앞의 논문). 월성에서 지근거리인 서쪽 500m지점에서 橈자 목간이 출토되었고, 또 동궁이 위치한 안압지 부근은 ‘橈司’銘 벼루가 출토되기도 했다. 이들은 신라 중앙관서에서 창고를 운영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고경희, 1994, 「新羅 月池 出土 在銘遺物에 대한 銘文 研究」, 동아대석사논문; 2000, 「雁鴨池名稱에 대한 考察」 『考古歷史學誌』 16).

- 42)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公廩田柴, 成宗 2년 6월; 12년 8월, “...給諸州府郡縣驛路公須柴地 千丁以上 八十結 五百丁以上 六十結 五百丁以下 四十結 一百丁以下 二十結...”.
- 43) 『高麗史』 권75, 選舉3 銓注, “成宗二年 改州府郡縣吏職 以兵部爲司兵 倉部爲司倉 堂大等爲戶長 大等爲副戶長 郎中爲戶正...倉部卿爲倉正...”; “顯宗九年 定 州府郡縣 千丁以上 戶長八人 副戶長四人 兵正副兵正各二人...”; “...文宗五年 十月 判 諸州縣吏 初職後壇史 二轉兵倉史 三轉州府郡縣史 四轉副兵倉正 五轉副戶正...”.
- 44) 문종 4년 4월 중서성에서는 關內西道 州縣의 種穀은 司倉에 보관된 관아의 곡식으로 지급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義倉에서 지급하도록 상주한 기록이 있다. 지방관아 재정정비가 한 단계 고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듬해에는 재정 관련한 향리직이 보다 강화되는 등의 제반 여건이 참고된다(『高麗史』 권80, 食貨3 賑恤, 水旱疾癘賑貸之制; 권75, 選舉3 銓注 鄉職, 文宗 5년 10월). 또한 고려시대 기록은 아니지만 조선초에 경주읍성에서는 기존 司倉이 있던 자리에 右司倉을 증설한다는 기록이 찾아진다(『慶州先生案』 「東都歷世諸子記」). 이로써 경주 司倉은 조선초 이전부터 초기읍성터 방면의 新邑基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45) 고려시대의 사실을 전하는 정확한 기록은 아니겠지만, 월성 북쪽에 해당하는

문종 전후 지방관아 공해전 지급과 관아의 독자적 재정운영이 가능해 진데다,⁴⁶⁾ 경주에서는 초기금성터 방면으로 신읍기 구축이 진작되어 기존의 창고나 관공서 시설은 쓰임새를 다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신라 하대 경주의 원도심과 북쪽문지 부근에 소재한 일부창고와 수공업관사는 차체에 소재지 근처 물류집산지로서 혹은 유통센터로 변화되어 갔다.

…其留守鷄林也 舊有一庫 名甲坊 賦民綾羅 貯之充貢獻 贏餘甚多 皆爲留守所私 公撤甲坊 以其綾羅 支三年貢 更不賦於民…⁴⁷⁾

위 기사는 고려후기에 權咀이 동경유수로 재임할 당시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전의 유수가 갑방이라는 창고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권단이 갑방을 철폐하고 1년 수납으로 3년의 貢을 지출했다는 내용이다. 본래 경주 갑방은 관공장을 동원해 농사를 생산하던 수공업장이었다. 그러나 고려후기에는 민간수공업자들이 제품을 수탈해 중앙에 공물을 상납하는 기관으로 변화했다. 민간수공업자는 물품을 생산하여 일부를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시장에 판매했다.⁴⁸⁾ 예컨대 경주 갑방과 같은 관공서가 고려중기 이후에 물류집산처로 변화된 사례라 하겠다.

셋째, 신라 왕도의 官市는 고려전기 이후에도 경주의 주요 교역장소로 기능했다. 경주의 官市는 東市·西市·南市가 있었다. 경주의 시전은 후한 낙양성을 참작해서 三市체제를 갖춘 것이었다. 각 시전의 위치는 확실하진 않지만, 후한 낙양성의 市街가 성안에 배치된 것처럼 경주의 三市

동천동 일대 옛 지명 가운데서는 관창골이 있다(『慶州風物地理誌』 동천동).
46) 安秉佐, 2002, 『高麗前期의 財政構造』, 서울대출판부, 268~273쪽.
47) 『高麗史』 권107, 列傳20 權咀; 『高麗史節要』 권23, 忠宣王 3년 12월, “(權咀)…留守東京 舊有一庫 賦民綾羅貯之 名甲坊 充貢獻 贏餘甚多 皆爲留守所私 咀撤甲坊以一年所收 支三年貢…”; 『陽村先生文集』 권3, 東賢事略, 權贊成諱咀字晦之.
48) 채웅석, 1997, 「고려후기 유통경제의 조건과 양상」 『한국고대 중세의 지배체제와 농민』, 김용섭교수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296~298쪽.

塵도 왕궁 내 성문 각 방면별로 입지했던 것이라 여겨진다.⁴⁹⁾

새 왕조로의 교체 초창기인 고려전기에는 중앙정부가 제 지역의 각종 재원을 국가차원으로 환수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따랐다. 이로써 왕도시절 경주의 시전체계와 시설을 용인해 주는 수준에 머물렀고, 그러한 가운데 王都의 각 성문을 중심으로 분포했던 三市는 퇴락하긴 했지만 고려전기 이후에도 경주의 교역장으로 기능하지 않았나 싶다.⁵⁰⁾ 三市가 고려전기 경주의 교역처이긴 했으나, 현종 3년 경주 치소성이 월성의 왕궁을 배제한 채 서북편에 축성됨으로써 유통품목과 교역장으로서의 성격 자체가 변화할 것은 쉽사리 짐작된다.⁵¹⁾

시기가 뒤떨어진 고려후기 왜구침입과 관련한 것이지만, 아래의 『慶州戶長先生案』 「倭寇擊退事實記」에 ‘市邊永興寺’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 사례도 경주지역 내 고려시대 시장의 존재를 확인케 해준다.

…洪武十二年 己未 閏五月十四日 倭賊船五百餘隻亦 蔚州浦下陸爲去 乙 州叱婦人小兒家財入城爲有馱 同月二十九日 同賊兵亦 且驛以入來次 元帥兼府尹河教是領軍 龍宮院坪隔川接戰次…元帥教示過城 安康以退走 賊兵亦一衙南北路以入來 市邊永興寺至圍把爲去乙 城頭防火桶接戰 不得 過西川上下峴 以到阿火驛倉庫米糶偷攬…⁵²⁾

- 49) 『三國遺事』 권5, 感通7 金現感虎, “…妾以明日入市爲害劇 則國人無如我何…君其無恟追我乎 城北林中…”.
- 5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慶州府 題詠 汶川聘望, “…人民蕭索僅成村 花柳淨春物色繁 城郭千年除市道…”.
- 51) 12세기 사정을 담아내는 『鷄林類事』에서는 개경시전 주변에서 부녀자들이 농가 부산물을 판매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鷄林類事』 高麗, “…日早晚爲市 皆婦人契一柳箱…”). 개경과 마찬가지로 지방도회인 경주에서도 무인집권을 전후해서 왕도시절 南市가 소재한 남문 주변의 汶川에서 祓禊 행사를 명목으로 각종 酒宴이 배풀어진 기사가 찾아진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慶州府 山川 祓禊, “…下有汶川一帶水…走向月精橋口過…洛邑諸生十萬指 臨流祓禊肩相磨…清觀半酣客未散…”). 이는 성급한 결론이긴 하지만, 신라 왕도시절 월성일대 官市가 고려전기 이후 舊邑基의 村市로 바뀌게 된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위 사료에서 제시한 영흥사 방면의 市는 신라 왕도시절 월성일대 官市는 아니며, 경주 구읍기 시장이 차츰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기록의 市邊이라는 표현은 市邊行廊에서처럼 市街와 동일한 의미로 파악되며, 고려시대에 영흥사 부근에서 開市된 이 시장은 府城의 남쪽 바깥에 어느 정도 상설적인 면모를 갖춘 것으로 생각된다.⁵³⁾ 영흥사는 경주 서북쪽에 위치하여 차제에 신읍기가 구축될 지점의 남쪽에 해당된다.⁵⁴⁾ 따라서 이 기록은 경주의 읍기가 이전되면서 신읍기 가까이 소재한 사찰주변의 교역장이 府治와 인접하게 됨으로써 郡縣市로 전환된 사례라 여겨진다.

나아가 신라 왕도시절에 官市인지 민간의 자생적 교역장인지 단정짓긴 곤란하지만, 월성일대 사찰 부근에서도 다수의 교역처가 확인된다.⁵⁵⁾ 월성중심의 구읍기 도로를 기준해서 황룡사, 흥륜사, 월성남쪽 남천의 월정교에서 천관사지 부근,⁵⁶⁾ 영묘사 등지에서도 교역처가 형성된 것으로

52) 『慶州戶長先生案』 「倭寇擊退事實記」.

53) 채웅석, 앞의 논문, 296쪽 각주) 62. 최근 김창석은 고려개경의 虛市를 중국 江南市와 같은 자생적 촌시가 아닌, 군현의 관아근처에서 開市한 군현시로 파악하고 있다. 신라통일기의 市塵이 해체되고 고려가 성립하면서 전대의 국가적 官市로서의 성격을 虛市가 계승한 것으로, 고려의 虛市는 군현시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16세기에 성립한 場市를 군현시로 이해한 이경식 설을 기본적으로 계승하는 입장이다(김창석, 2004, 「고려전기 虛市의 성립과 그 성격」 『역사와현실』 53).

5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慶州府 古蹟條.

55) 『破閑集』 권(中), “金庚信鷄林人…一日偶宿女隸家 其母面數之曰 我已老 日夜望汝成長…今乃爾與屠沽小兒 遊戲娼房酒肆也…女作怨詞一曲傳之 東都有天官寺 卽其家也 李相國公升嘗赴東都管記 作詩云 寺號天官昔有緣…”; 권(下), “昔元曉大聖 混迹屠沽中 嘗撫院曲項葫蘆 歌舞於市 名之曰無尋…”.

56) 신라 경주의 3시전은 중국 洛陽城을 모방한 것으로 성문 근처에 소재했다(김창석, 2004, 『삼국 및 통일신라의 유통체계 연구』, 일조각). 박방룡은 황룡사지·흥륜사지·남천 일대를 각각 동시·서시·남시로 비정하기도 한다(박방룡, 2006, 「신라 왕경의 구조와 체계-新羅王京과 流通」 『新羅文化學術祭論文集』 27). 이들 지역에서 확인되는 시장이 신라 王都의 官市인지 여부를 떠나서 해당지역 인근에 생성된 교역장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보인다.⁵⁷⁾

이에 덧붙여 교량을 살필 필요가 있다. 왕도시절 경주에서는 월성중심으로부터 서천·문천 방면에 교량이 집중되어 있다.⁵⁸⁾ 월성일대 교량은 왕도의 大內와 시가지 곳곳에 하천으로 단절된 지점을 이어주던 통행보조시설로 신라 국가차원의 대규모 토목공사의 소산이었다. 월정교는 월성 중심에서 남으로 통하는 大路 위에, 서천교는 서쪽 방면, 금교는 금성으로 들어오는 관문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⁵⁹⁾ 특히 문천은 형산강을 거쳐 조운선이 출입하는 관문이었고,⁶⁰⁾ 고려시대에는 祓禊행사가 개최되던 장소였다.⁶¹⁾ 경주시가를 연결하는 이들 교량 주변으로는 고려전기 이후 민의 왕래가 빈번해짐으로써 교역처 생성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었다.⁶²⁾

요컨대 현종 3년 초기 금성터 방면을 치소성이 둘러싼 후 신읍기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월성중심 왕도시설이 일부 활용되었다. 월성중

57) 『續東文選』 권3, 五言古詩 靈妙寺, “古刹臨官道…崑峩高萬丈 棟宇行雲低…赫赫金仙軀 綵暈光滉朗…當時朝市空 鬼功嗟可賞 屈指貞觀年 臨風一拊掌”.

5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慶州府 古蹟條.

59) 神元橋는 府西 10리 정도로 神元寺에서 西川의 본류에 놓인 교량이다. 楡橋는 월정교라고도 하는데 통일신라 이전의 木橋로서 월성과 요석궁 사이 남북을 통행하는 요충지에 세워졌다. 金橋는 현재의 서천교 주변으로 인근에 흥륜사지와 松橋가 있다(김동한, 1995, 「토목의 역사를 찾아서-경주의 橋跡」 『土木』 43-5, 토목사편찬위원회, 77쪽 ; 서병국, 2011, 「신라왕경의 교량과 도시계획-경주 남천의 교량지와 신라왕경」 『경주문화』 17).

60) 『息山集』 「息山先生別集」 권4, 地行錄 東都雜錄, “東都之水 西天最大 汶川次之 汶川上流曰史等伊源 出吐含經月之下 爲汶川 合西川 歸兄山浦 入東海 新羅海漕自兄山達于汶川 汶川能運漕 則其大可知”.

6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慶州府 山川 祓禊.

62) 『慶州風物地理誌』에서는 차제에 월성 구읍기 안팎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고갯길·역참·창고주변에 형성된 시장 관련한 옛 지명을 다수 진한다. 이들 물류집산지를 중심으로 차후 市가 형성되어 방사상으로 얽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송대 강남의 市鎮·村市 생성과도 흡사하다(斯波義新, 1968, 『宋代商業史研究』, 風間書房).

심과 북쪽방면은 고려전기에는 지방관사의 기간시설물이 배치된 구읍기로 활용하다가 점차 변화가 있었다. 이전 왕도의 월성일대 사찰이 고려전기에도 여전히 寺勢가 유지되는가 하면, 왕도의 재정·유통시설은 일정 기간동안 경주의 부속창고와 교역처로서 역할하였다. 또한 민 결집이 가능한 교통요충지로는 민간 부분의 교역처가 확산되는 추세였다.

Ⅲ. 초기금성 방면 新邑基의 景觀

현종 3년 경주 서북방면에 치소성을 에워싸긴 했어도, 경주세력과 읍기이전에 따른 공사기일 등 제반 문제로 치소성 시축 즉시 신읍기를 구축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문종 전후로 상시적 외관청사가 두어지고 행정력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주 신읍기 건설에 힘을 실을 수 있었다. 이미 지적했듯 읍기이전과 신읍기 건설에는 국가권력의 투영이라는 함의가 있다. 신읍기 건설에 국가적 시설이 강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경주 신읍기 구축과 지방도회 경관의 조성에 있어서는 크게 몇가지를 전제해 두어야 할 것이다. 초기금성터 방면의 치소성 시축과 신읍기 건설은 현종 무렵 경주세력 제어와 전 왕조와의 단절성을 표방한 측면이 있다.⁶³⁾ 때문에 경주 신읍기에서도 국가공권력이 경관을 강제하려 했을 터이고, 이는 고려중기 이후 지방도회 경관의 전형적 특징으로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때 중세적 도회 경관코드로서는 府治 중심의 資福寺와 이 시기 즈음해서 투입되기 시작한 객사건물을 지적할 수 있다.

63) 鄭銀禎, 앞의 논문, 86~90쪽.

국가적 행정 및 권위시설의 배치와 짝하는 변화로 관아거리 내외의 민가·촌락이 어떤 방향에서 밀집도가 높은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촌락의 밀집현황 분석은 읍기내외의 교통 결절지점과 외곽 간선관도와의 접근성, 그로 인한 읍기관향의 결정과 촌락분포 등 여러 부문과 떼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신읍기에서 細路와 촌락의 신설·밀집현황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다름아니라 경주 신읍기 지역은 신라 월성중심의 당초 계획된 관아거리가 아니라, 신라하대말 팽창된 도시민의 생활영역이라는 점이다. 경주 신읍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관아시설물을 투입하기에 앞서 도시민의 일상 생활영역부터 수습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신읍기는 월성일대 구읍기 지역에 비하면 도로사정도 불규칙한 데다, 도시구획도 부정형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지적한 몇가지 사항을 차례대로 살피려 한다.

첫째, 경주 신읍기 건설이 진전됨에 따라 월성일대 관아와 기존 건물의 건축기자재를 옮겨오기도 했다.⁶⁴⁾ 월성일대 시설의 부자재를 가져옴으로써 그 일대를 훼손하려는가 하면, 신읍기 중심으로 다양한 권위체계와 관아시설을 신설하고 있다.

경주 신읍기에서는 허한 來脈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邑藪가 출현하였다. 古新羅의 읍수가 남천변이나 월성주변, 신라시대에는 서

64) 홍륜사지로 추정되는 사정동은 경주분지와 서천·북천의 합류지점에 형성된 구릉경사면에 소재하며 2층의 층위가 확인된다.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적심 북쪽 옆에서 9m거리의 건물지와 평행하게 동서방향의 담장유구가 있다. 담장유구는 천석·할석 및 신라시대 와편과 기왓돌을 섞어서 평적해 만들었는데 신라의 건축기자재를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경주 신읍기의 獄舍址에서는 獄舍 담장 축조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대석이 발견되었다. 장대석에는 ‘天王寺小標 三丈六(大?) △(高?) 至北五(里)’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嶺山사록 소재의 사천왕사 장대석 일부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1, 『경주시 사정동』;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경주 서부동 19번지 유적』).

천변이나 북천 북안에 방수림 차원인데 반해서, 고려시대 읍수는 주로 비보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인식되는 경주의 읍수로 는 한지수·비보수·오리수·동정수 등이 있다.⁶⁵⁾

閑地藪는 명활산으로부터 치소성으로 이어지는 내맥 통로 위에 현재의 보문동과 구황동 경계부분에 입지함으로써 풍수상 鎭山의 氣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⁶⁶⁾ 비보수는 치소성 내 부윤의 관사 북서편을 에워싸듯 조성되어 북쪽이 허한 경주를 비보하였다.⁶⁷⁾ 오리수는 치소성 북편을 흐르는 북천의 수해를 방지하고 내맥 부근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되었다.⁶⁸⁾ 신유림터에 사천왕사를 지은 후 남은 잔존림으로 마련한 東亭藪는 12세기에 東亭이 세워진 후 조성되었는데, 南川의 경승과 어울리는 유희장소로 기능했다.⁶⁹⁾ 고려중기 이후 이러한 邑藪의 조성은 경주 신읍기의 경관 조성에도 일조했다.

둘째, 신읍기의 권위경관으로 경주 府治로부터 반경 5리 사방에 소재한 資福寺를 들 수 있다.⁷⁰⁾ 월성일대 사찰이 현종 3년 치소성 시축지역에

65) 『東京雜記』 권2, 藪.

66) 『東京雜記』 권2, 閑地藪, “在府東八里 卽閑地原也…今年沙里驛卒 移之後 依前種樹以爲 後日成藪之地…”.

67) 『東京雜記』 권2, 裨補藪, “在府城中府尹御舍址”.

68) 『東京雜記』 권2, 五里藪, “府東八里 東川邊廻表五里故名”.

69) 최원석, 1996, 「慶州邑藪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국토건축학회지』 국토계획31-3 ; 2001, 「嶺南地方의 裨補 邑藪에 관한 研究」 『문화역사지리』 15.

70) 경주의 사례는 아니지만 고려시대 지역 내 資福寺에 대한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김운곤, 2000, 「고려시대 慶尙道 지역의 사원과 불교문화」 『한국중세사연구』 9 ; 2001, 『한국중세 영남불교의 이해』, 영남대출판부 ; 韓基汶, 1998,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 2006, 「高麗時代 裨補寺社의 成立과 運用」 『한국중세사연구』 21 ; 2008, 「고려시대 尙州 龍潭寺 景觀과 機能-이규보의 南遊詩를 중심으로」 『尙州文化研究』 18 ; 2010, 「고려시대 사원의 정기행사와 교역장」 『대구사학』 100 ; 2011, 「고려시대 資福寺의 성립과 존재양상」 『민족문화논총』 49 ; 구산우, 2003, 『高麗前期 鄉村支配體制 研究』, 해안, 486~500쪽). 資福寺는 고려시대 지방행정단위의 치소 가까이 분포하는 사원을 일컫는 보통명사로서, 비보사원의 한 유형이다. 자복사에 대해서 한기문은 고려 태조이래 설정된 후 현종대 거란침

서는 빠지면서, 신읍기 치소 사방에 분포한 사찰이 증시되었다. 자복사는 경주 신읍기 최근접한 2~5리 정도 거리에서 배치의 밀집도가 높은 편이라 하겠다.⁷¹⁾

경주 府治 중심에서 강한 구심력을 보이는 자복사는 대체로 문종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문종 즉위년에는 東·西兩京과 4都護·8牧에서 국왕축수도량이 배설되었다.⁷²⁾ 이때 국왕축수도량의 실행장소가 월성 일대인지, 신읍기의 어떤 사찰인지를 명확히 하긴 어렵지만, 문종 연간의 東京 국왕축수도량은 경주 자복사 성립에 한 획을 긋는 것임에는 분명하다.⁷³⁾ 현종 3년 치소성 시축 이후 읍치 자복사 성립에 때맞추어 차후 상시적 외관청사가 경주에 두어진 점 등은 신읍기 건설의 진전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동시에 신읍기로부터 반경 5~10리 정도 거리의 자복사는 주변 사찰과 속말관계를 유지하게 된다.⁷⁴⁾ 고려중기 이후 경주에서 府治 내 자복사를 정점으로 한 동심원구조의 사찰배치를 통해서 중

입과 읍기정비를 바탕으로 확대되고 이후 문종대 국왕축수도량의 정례화·범계화를 계기로 정점을 이룬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고려시대 읍내 가까이 소재하는 자복사는 숙박기능과 관리 영송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신라 官市의 전통을 계승한 虛市로 보고 있다(한기문, 2011, 앞의 논문). 자복사를 宋代 사원근처 교역장으로서 廟市로 본 듯하며, 필자도 이에 입장을 같이한다.

- 71) 경주읍내 資福寺는 慶州府 東 23리 甫伊院, 南 5리 南院, 府西 5리 靈廟寺, 府東 5리 芬皇寺, 月城西北 天柱寺, 府南 2리 興輪寺, 府東 2리의 奉聖寺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慶州府 古蹟條; 『東京雜記』 권2, 佛宇條).
- 72) 『高麗史』 권7, 文宗 즉위년 12월 丙午, “...百官詣輓德殿 賀成平節 宴宰樞給舍中丞以上侍臣于宣政殿 成平節 王生日也 每遇節日 國家設祈祥迎福道場於外帝釋院 七日 文武百寮 於興國寺 東西兩京四都護八牧 各於所在佛寺行之 以爲恒式”.
- 73) 한기문, 2011, 위의 논문, 286~289쪽.
- 74) 황룡사 찰주본기에 보문사가 언급되는데, 보문사는 황룡사의 속사로 추정된다(黃壽永, 1973, 「新羅黃龍寺九層塔誌-黃龍寺刹柱本紀に對して」 『アジア文化』9-3, アジア文化研究所). 또한 고려시대 기록은 아니지만 임진왜란 이후 분황사 중창 기록에서 재건에 참여한 8개 사찰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사찰 중 정혜사·거동사가 보이는데, 慶州府治 가까이 소재한 분황사를 지원하는 末寺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문화재관리국, 1992, 『분황사석탑 실측조사보고서』; 1998, 「분황사보광전주공사보고서」).

세적 도회경관을 연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⁷⁵⁾

국가가 지방거점 단위인 경주에 권위경관을 강제한 또다른 것으로는 새로운 관아시설의 부식, 그 가운데서도 태조진전을 계승한 객사건물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객사는 예종·인종대를 기점으로 파급되다가 려말 선초에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⁶⁾ 객사·성황사·사직단·여단·주학 시설은 계수관 관격을 지닌 대도회에 설치한 것이다.⁷⁷⁾

경주객사의 경우는 충숙왕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⁷⁸⁾ 객사인 동경관은 태조진전이 설치되었던 경주 내 聖所로서의 성격이 짙은 데,⁷⁹⁾ 고려시대 태조진전은 개경의 중심사찰과 서경·동경 등 兩京에 두어졌다.⁸⁰⁾ 태조진전이 설치되었던 聖所를 경주객사가 대체한 것은 고려시대 副都로서 경주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慶州邑內全圖」에서 확인되는 조선시대 邑基 구조는 일반적 관아배치의 전형적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東西大路를 기준해서 동북구획으로는 집경전과 裨補藪가 있으며, 서쪽구획으로 감옥·양무당·진고당이 있다. 대체로 지금의 경주 동부동에 고려시대 관아지 관련한 각종 유구가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⁸¹⁾

75) 중세적 지방도시 경관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도시사연구가 참고된다(伊藤正敏, 2000, 『日本の中世寺院』, 吉川弘文館; 中世都市研究會 編, 2000, 『都市の求心力・城・館・寺』, 中世都市研究7, 新人物往來社).

76) 김동욱, 2000, 「고려말 조선초기 객사의 일반론-안성객사해체 중건공사보고서」, 39~42쪽.

77) 구산우, 2002, 「고려시기 계수관의 지방행정 기능과 위상」 『역사와현실』 43, 244~246쪽; 박종진, 2005, 「고려시기 계수관의 기능과 위상」 『역사와현실』 56, 187~189쪽.

7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慶州府 倚風樓; 『輿誌圖書』 권32, 慶尙道2 慶州府 樓亭 賓賢樓.

79) 韓三建, 1993, 「韓國における邑城空間の變容に關する研究」, 京都大學 博士論文, 90쪽; 1998, 「경주 읍성지구의 일제시대 토지소유 변화」 『건축역사연구』 18.

80) 韓基汶, 앞의 책, 220~230쪽.

81) 韓三建, 1993, 위의 논문, 92~93쪽.

경주 신읍기 관련해서는 우왕, 조선 세조대 개축기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기록이 없다.⁸²⁾ 이후 개축기사도 객사건물의 화재·수리⁸³⁾ 만이 있을 뿐, 신읍기 내에서 특정 관아시설의 이건이나 증수에 대해서 전혀 알 수는 없다. 이는 고려시대 경주 신읍기의 관아배치구조가 조선시대까지 어그러짐없이 이어진 일면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여기서 파악 가능한 고려시대 경주 신읍기의 구조는 객사인 동경관을 정점으로 동헌구역이 좌우로 분포되어 있다. 신읍기의 주출입문에 해당하는 남문을 통해서도 외방관도와 연결된다. 이러한 구도는 신읍기에서 봤을 때 관청과 객사가 읍기 중앙에 분포하는 형태로서 신라 도성의 관아 배치구조에 준하는 것이자, 고려시대 여타 계수관 단위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⁸⁴⁾

셋째, 경주 신읍기의 관향은 외방관도와 배후촌락과의 통행을 참작해서 결정되었다. 경주부치 내 도로는 각 성문을 연결하는 십자형태로서 서북방면에서 간선관도인 慶州道⁸⁵⁾와 만난다. 경주가 수도개경에서 동남방향이므로, 개경에 연결되기 위해서 慶州道는 서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慶州道の 진행 방향과 일치하여 경주의 속현은 현종 3년 치소성 시축을 조금 지난 同 9년 신읍기 서북 외곽에 배속되었다.⁸⁶⁾

이렇듯 현종 3년 치소성 시축 이후부터 신읍기 건설에 즈음해서 慶州

8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慶州府 沿革.

83) 『慶州先生案』 「東都歷世諸子記」.

84) 韓三建, 1993, 앞의 논문, 93쪽.

85) 慶州道는 德風 慶安 長嘉 安業 南山(廣州) 良梓(果州) 金嶺 龍口 左贊 分行(竹州) 五行 安利(利川) 無極(陰竹) 遙安(陰城) 丹月 安富(槐州)를 관할한다(『高麗史』 권 82, 兵志2 站驛). 慶州道는 대체로 현종대를 기점으로 정비되기 시작하다가 문종·인종조에는 驛路가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한다(정요근, 2008,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研究」, 서울대박사논문, 32~40쪽, 63~73쪽; 韓禎訓, 2009, 「高麗時代 交通과 租稅運送體系 研究」, 부산대박사논문, 67~78쪽).

86) 『高麗史』 권82, 兵志2 城堡條 顯宗 3년; 권57, 地理2 東京留守官 慶州; 鄭銀禎, 앞의 논문, 88쪽.

더욱이 경주신읍기 바깥 방면,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서쪽·북쪽으로 통행편의를 위해 細路가 신설되거나, 촌락생성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찾을 수 있다.⁸⁸⁾ 이를 앞의 【그림 2】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2】 ‘경주 新·舊邑基의 촌락분포’와 별첨 【표 3】을 통해서 고려시대 경주의 촌락생성 현황을 살필 수 있다.⁸⁹⁾ 예전부터 있어왔던 촌락은 신라시절에는 대체로 월성과 그 남쪽에 집중되어 있다. 고려전기에도 후삼국전쟁기 건훤이 신라를 침입했을 때 竹羅가 빠져죽은 沼 관련한 죽라리 외에 남산동 순지촌, 구정동, 동천동의 박바우마을 등 몇몇 촌락이 월성일대에 신생하고 있다.

경주 서·북쪽 촌락 가운데서 고려시대의 연기가 확실한 것으로는 산내면 대현리 시다마을, 안강의 시티재마을·육동리 회화나무마을·존리, 서면의 도계리·사라리·서오리·이반제 마을, 충효동의 재동, 서악동의 광풍정 노하마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신읍기로부터 서북 방면에 분포하는데, 고려시대 촌락의 생성률에 있어서는 월성동남 방면보

88) 『慶州風物地理誌』 서부동, 봉황로. 고려시대 관련기록에 부합하진 않지만, 조선 후기 경주 신읍기터인 서부동 일대에서는 차체에 牛市가 2·7일장으로 개설된 기록이 있다. 서부동 19번지 牛市場 주변으로는 신라하대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던 도로유구도 찾아진다. 현재의 봉황로 사례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봉황로 일대는 경주읍성 남문 주변인데 일제시대에 읍성남문이 훼손되어 신작로가 개설되었다. 그런데 봉황로는 조선시대에 中心街路이자, 주변으로는 웅기진 외 다수의 場이 開市되었다. 조선시대 읍성지구와 고려시대 신읍기 구축 지점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환기한다면, 고려시대 치소 안팎을 연결하는 大路 주변으로 鄕市가 형성되어 간 사실을 거꾸로 소급 가능하다. 이는 제한적이지만 고려시대 경주 신읍기 안팎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를 시작으로 서서히 교역처가 확산되어 가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89) 행정지명도 아니고 향토지에서 전하는 옛 지명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의 의문이 남는다. 하지만 『慶州風物地理誌』에서는 『三國遺事』, 『金石文』, 『高麗史』, 『東京雜記』 등 경주관련 각종 地理誌에서 파악할 수 없는 고려시대 촌락 관련된 몇 건의 옛 지명이 확인되어 크게 참고된다. 조선시대 경주의 자연마을은 경주 전역에 두루 산포하고, 마을간의 거리가 가깝게 분포하고 있다. 조선시대 이후는 본고의 대상 시기가 아니므로 제외하고자 한다.

다 경주 서·북쪽이 다소 높아 보인다.

게다가 고려시대 이후 경주 신읍기 서·북방면 촌락의 개발요인을 가늠케 하는 흥미로운 편린이 있다. 경주 신읍기에 皇五리가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皇村이라 불렀다.⁹⁰⁾ 이 근처에 경주관아로부터 5리 정도 떨어진 ‘五里場배미논’이 있는데, 조선시대 관아의 아전들이 부근까지 와서 부임하는 원을 맞이했다고 한다.

원래 대구·경주 간 官路는 대구·영천·건천·여근곡을 건너 경주를 거쳐야 하지만, 여근곡을 꺼려 영천·시티재·안강으로 지나는 길목을 주로 이용했다.⁹¹⁾ 고려전기 이후에는 경주를 기점으로 상·하행루트로서는 서북방면의 안강일대 시티재가 주요통행길로 이용되었다. 이같이 경주 서북방면 고갯길이 기존 官路를 대신해서 이용빈도가 높아지자, 이와 부수하는 현상으로 주변에는 고려시대에 비로소 개척된 촌락이 다수 확인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경주 월성일대와 치소성지구의 도로폭, 기존 도로의 중첩사용 및 細路의 신설여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신읍기의 경관 조성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 별첨 【표 2】에서 파악되듯 월성중심부의 도로는 대부분 개설 연한도 오래되고 노폭도 15m를 상회하는 大路이다. 6세기에 개설된 것으로 파악되는 인왕동·황남동·황룡사·구황동·안압지·경주박물관부지의 도로는 노폭이 넓으며, 고려시대 이후에도 기존 왕경대로를 중첩적으로 쓰고 있다.⁹²⁾ 한 사례로 인왕동 556번지 유적에서는 2층위의 도

90) 『慶州邑誌』 권3, 坊面沿革.

91) 『慶州風物地理誌』 황오동, 안강.

92) 구읍기 월성일대에서는 수랏길이라는 지명이 간혹 찾아진다. 순라꾼이 지나가는 길목 혹은 수레가 다니던 옛길 정도의 뜻으로 파악 가능하다. 사정동 수랏길(길)은 국당마을의 동쪽길, 황남과 사정의 경계로서 경주에서 언양 방면으로 가던 길을, 인왕동 솔렛골은 왕정골 동남쪽 남산성 안의 마을로서 역시 순라꾼 또는 수레가 다니던 길이라는 의미이다. 황성동의 용강·동천·황성의 경계지점에는 신라때부터 있어왔던 옛절터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이처럼 구읍기 곳곳은 大路

로유구가 발굴되었다. 동서도로 8.2m, 남북도로 10.2m의 길인데, 고려시대에 사용된 상층도로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하층도로를 그대로 사용한 흔적이 찾아진다.⁹³⁾

이에 반해, 신읍기 터인 경주 치소성 방면은 8세기 후반이나 9세기 경에 조성되어 월성중심지구와 비교하면 도로의 개설 연한이 늦은 편이다. 거기에 신읍기 안팎 도로는 읍기건설이 진전되면서 노폭이 각각 다르게 조성되었다. 객사·일승각 등 관청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大路를 제외하고는 읍기 사방문을 연결하는 십자형 가로망을 간선으로 하면서 각 街路들에 평행 혹은 직교하여 일정간격을 지닌 ‘길’들이 다수 생성되어 나갔다.⁹⁴⁾ 신읍기 바깥 서·북 방면에 고려시대에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小路가 산견된다. 사례로 충효동은 신읍기 외곽의 서쪽에 해당되는데 고려중기 이후 개설된 1.4m의 小路가 포장되지 않은 채 발굴되었다. 기존 왕경대로에 노폭을 줄여 개·보수하면서 사용하던 차원이 아니라 새로이 자연적인 ‘길’이 만들어진 것이라 하겠다.

이는 처음 치소성 안팎 小路는 북문일대를 제외하고 동·서·남의 三門 중심으로 존재하다가, 이후 북쪽성문 부근에도 만들어졌으로써 경주 신읍기의 사방문에서 각 촌락간 통행 편의를 목적으로 한 ‘길’의 생성이 확산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곧 신읍기 안팎 小路는 이전부터 있었

었지만 옛길로서 겨우 명맥이 유지되는 정도였다(『慶州風物地理誌』).

93) 경주문화재연구소, 1999, 「인왕동 556번지」 『연보』 19.

94) 韓三建, 1998, 앞의 논문, 92~94쪽; 윤태열, 2010, 「근대도시 계획제도의 도입 이후 경주 도시계획 변화특징」, 경일대박사논문, 32~33쪽; 홍사철, 2010, 「역사도시 경주를 위한 경관 정체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박사논문; 기주석, 2000, 「경주 구시가지 역사적 경관요소의 시각적 특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석사논문; 이재환, 2006, 「조선후기 경상도 읍치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경주 신읍기 내의 도로는 동서남북 십자형의 기본구조인데, 노폭은 객사에서 일승각에 면하는 도로가 가장 넓다. 東門으로 향하는 도로가 9m, 남문으로 향하는 도로 8m, 객사에 연한 도로 23m, 일승각에 연한 도로 10m, 가구내부로 접근되는 도로는 2~3m, 치소성 외곽 연결도로는 평균 8m내외이다.

던 촌락과의 주요통행로와 새로이 서북방면에 신설된 촌락과의 연결을 긴밀히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전개된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처럼 경주 신읍기와 외방의 촌락간 통로는 남·동·서 방면이 주를 이루다가 점차 북쪽 방면에도 細路가 조성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 신읍기 중심으로부터 뻗어나가 치소성 바깥 외방도로는 성 남문과 연결되는 南北街路와 서천에서 분황사로 이어지는 東西街路에 의해서 골격이 이루어졌다. 경주 치소성 외곽도로와 관련해서는 불국사 일주문에서 사천왕문으로 개설된 진입로의 동쪽에 위치한 곳에 고려시대 건물지 및 옛길 유구가 발굴되었다. 그 가운데 仇於驛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 불국사 경내유적은 산길을 통해서 8세기 중엽 무렵에 세워진 장항리사지·감은사·기림사로 갈 수 있는 간선도로에 위치하였다.⁹⁵⁾

요컨대 고려중기 이후 경주 신읍기는 府治 내의 客舍와 資福寺를 중핵으로 중세적 도회경관을 연출했다. 또한 경주 신읍기 성문 안팎으로 인근촌락과의 접근성을 염두에 두고 小路가 개설되었다. 월성일대를 정점으로 전개되던 큰 노퍽의 大路는 초기금성터의 신읍기에 닿아서는 노퍽이 일정부분 조정되었다. 신읍기의 객사와 관아거리 방면이 大路가 되고, 월성 중심 구읍기의 흥륜사전로, 황룡사 남북대로는 고려중기 이후 신읍기에서 배제되어 옛길로서 명맥이 겨우 유지되는 상황이었다.

맺음말

본 연구는 현종 3년 성곽을 시축하고 난 후 무인집권 전까지 고려시대

95) 경주대학교박물관, 2006, 「경주 불국사 경내 성보박물관 건립예정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경주의 新·舊邑基 이전과 그에 따르는 景觀을 밝히려 했다. 경주 초기금성터 방향의 신읍기 건설이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태조대부터 현종 3년 이전까지의 都內 축소, 현종 3년 치소성 시축 이후 신읍기 건설이 진전되는 동안에도 월성일대의 각종 시설을 활용·변용, 문종 이후 경주가 지방도회로서의 景觀을 획득하는 각 단계로 설정해서 新·舊邑基에서 도시기반 변화와 시설의 투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현종 3년 경주 초기금성 방향에다 치소성을 시축한 사실은 기존 월성일대를 벗어나 신읍기를 이 곳에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려시대 경주 新·舊邑基의 교체를 단적으로 일러주는 외관청사의 소재파악은 문헌자료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는 작업으로 경주 왕경지구와 읍성지구에서 공반출토되는 유물을 분류해보니, 대체적으로 왕경핵심구간에서는 고려전기의 관아유구, 읍성지구에서는 고려중기 이후의 그것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경향이였다.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고려 전·중기 경주의 新·舊邑基 교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종 3년 이후 초기금성 방향으로 신읍기 구축이 일단락되기 전까지는 월성일대의 기존 관아시설을 활용·변용하는 절충과정이 있었다. 월성일대 이전 왕도의 기반을 일시에 훼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려 전기에는 차선으로 기존 관아시설물과 부지 일부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나 싶다.

신라 왕도시절 월성일대에 포진한 官市는 고려전기 이후에도 경주의 중심교역장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종 이후 경주 신읍기가 월성서북에 치우쳐 건설됨으로써 이들 三市 소재지역은 촌시·허시로 변화하였다. 동시에 慶州府治 안팎을 연결하는 中心街路 주변, 민이 걸잡하기 용이한 교통결절지점에서 교역처가 확산되어 나갔다. 기왕의 경주 舊邑基 내외의 邑內場과 鄉市의 연원은 월성일대에 포진한 신라왕도의 官市체제에서

유래한 것으로, 새로이 치소성이 옛 금성축 방향으로 구축되기 전까지는 신라 왕도의 각종 도시시설을 일부 활용하면서도 변용되던 사실을 가리킨다.

고려중기 이후 경주 신읍기에는 국가차원에서 권위경관을 강제하였다. 이즈음 資福寺의 배치와 客舍 설치를 통해서 경주는 지방도회 경관의 전형을 갖추기 시작했다. 경주 府治 안으로 자복사가 배치되고 예적 질서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 객사가 신설되었다. 객사는 원래 고려중기 이후 대도회단위에 투입된 것으로, 경주의 객사는 태조진전을 둔 聖所로서의 성격이 짙다. 객사를 대체로 북쪽에 두던 것과는 별개로 경주에서는 관아의 중앙에 배치되고 규모도 컸다.

경주 신읍기에서 관향은 교통로를 참작해서 정해졌고, 신설마을의 분포는 서북 방면에서 밀집이 뚜렷하다. 고려중기 朝山·主山과 같은 관념적 지향이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변방인 경주와 수도개경과의 연결이 읍기의 관향 결정에 참작되었음을 내포한다. 경주 신읍기의 小路는 이전부터 있어왔던 마을의 주요통행로와 신설 마을과의 연락을 긴밀히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신설되었다. 고려중기 경주 신읍기에 국가가 강제하는 권위체계와 이에 추수하는 미세한 변화로부터 경주는 지방도회 경관을 점차 갖추어 나갔다.

고려중기 경주의 문基 이전과 景觀

별첨 【표 1】 경주 왕경지구의 공반출토 유구 현황¹⁾

유적지	시기				비고
	신라	고려전기	고려중기	조선	
황룡사SIEI ²⁾	진단구	唐 백자편(10c)	·	·	·
SIEI · SOEI ³⁾	坊 토기	청자	·	분청사기, 백자	·
황룡사연구센터 예정부지 ⁴⁾	연못1 7c~9c후반 당초문암막새	·	국화문상감청자 주름문토기편	·	·
구황동880-16 ⁵⁾	건물지, 우물 담장 배수로	·	·	·	공방지
월성해자 ⁶⁾	굴림주 (軍 · 官시설)	·	·	·	·
월성해자 ⁷⁾	義鳳四年銘 벼루다리	햇무리굽청자 햇무리굽백자	담청색청자단지 (계립복편) 熙寧圓寶 ²⁾	·	·
월성 ⁸⁾	11성곽,문지 在城銘 기와 '金'銘토기 義鳳四年銘 벼루다리	우물덧개돌	·	·	·
안압지	담장 도로 丙一升 文生 中上 (주사위)	·	·	·	놀이문화
동천동7B/L ⁹⁾	坊 우물2	청자편	기와, 청자편	·	·
동천동698-2 ¹⁰⁾	坊	·	·	자기	왕경북쪽 외곽
동천동792-3	적심건물	·	·	·	·
동천동789-1 ¹¹⁾	담장 석열 우물2 건물2 노지	·	·	·	·
동천동793 ¹²⁾	배수로 건물 주름무늬 병 등잔 청동교구	·	·	·	·

1) 별첨 【표 1】 ‘경주 왕경지구의 공반출토 유구 현황’은 각종 보고서를 참고로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사학연구 제106호(2012. 6)

유적지	시기				비고
	신라	고려전기	고려중기	조선	
황오동330	담장 적심건물
황성동535-8 537-4 544-1,6	도로	.	.	.	신라 ~ 조 선
황성동949-113)	.	.	청자	분청사기	.
황성동950-114)	남북도로	.	청자	자기	.
황성동57515)	건물지
인왕동41216)	坊 동물형 벼루	.	청자발 상감청자	長興庫銘 분청사기	.
인왕동55617)	坊 담장	.	.	.	신라왕경 중심지
국립경주박물관 부지18)	우물, 기와 도로 동물형벼루 솜명문토기 南宮之印 瓦 開元通寶	.	.	도로 바퀴흔 배수구	5~6c도로 → 8c건물 → 신라 멸망 건물폐기 (도로 지속)
석악동25619)	청동기 ~ 근대	.	.	주거6 노지 도로2 수로	.
석장동Ⅱ20)	.	.	청자팔각접시 청자대접 청동수저	.	민수용청자 분묘총8기
석장동Ⅲ	도로
조양동21)	적심건물	어골문기와	청자	.	.
왕경지구내 가스관매설지22)	坊 도로 담장
재매정지	건물지, 토기	.	청자	.	17~18 건물지 고려시대 축조
사정동23)	추정홍륜사지	헛무리굽청자 정면3칸×측면 2칸	청자백상감 宋 자기	.	寺址
사정동459-924)	와당 토기 철	정면4칸×측면 2칸	.	.	.

고려중기 경주의 문基 이전과 景觀

유적지	시기				비고
	신라	고려전기	고려중기	조선	
사정동436-225)	중판타날와 청동 용범	수키와 (미구기와)	청자편	백자편	공방 (신라)
탑동772	벼루	小路(폭1.5m)	·	·	·
서부~황오동	·	적심건물지	청자	·	관아건물
황오동118-626)	적심건물5 수혈3 벼루	·	평와 溝	백자 자기	관아건물
황남동194	연화문막새 보상문기와	어골문 평기와	어린문 기와	·	관아건물
황남동대릉27)	건물지6 벼루,당삼채 배수구 積석 官井銘 瓦 중국청자편 녹유토기편	·	·	·	관아건물
황남123-228)	적심건물지 담장 토기 연화문막새 지진구 벼루다리	·	·	·	·
노서동160-129)	건물지6 석렬2,수혈 진단구2 아궁이	·	·	·	·
서부동255-21	인화문토기 벼루다리	·	·	·	읍성 동쪽
서부동	토기	어골문 평기와	어린문 기와	·	·
서부동1930)	우물4 도로유구 市旨陵草文	햇무리굽청자 완	배수로, 도로 雲文청자뚜껑	長興庫銘 분청사기 승月□正鄕瓦	獄址
서부동2-22	·	어골문 평와	·	·	·
서부동4-131)	건물지6 수혈, 우물 도로, 벼루	·	·	자기	·

유적지	시기				비고
	신라	고려전기	고려중기	조선	
성동동273 ³²⁾	인화문토기 시루	어골문 기와	상감청자편 청자편	城公干 己未年 백자 右官 명문 와 長興庫 銘 분청사기	생활 폐기물 읍성 동문 감옥터
성동동143-7	남북도로	햇무리굽청자 10C초 기와	.	목서명백자 용기 전돌 踏水銘암키와	관아건물 지
성동동201-1	진단구	햇무리굽청자	청자완 (덤병기법)	長興庫銘 분청사기	읍성 동문 지
성건동677-114	.	.	청자완	포목흔 기와 와도흔 기와	.
성건동하구리 ³³⁾	수혈31 溝2, 우물6	.	.	수혈2 溝1 우물6	.
성건동374-13	토기편
성건동 677-156,120 ³⁴⁾	귀면와	집수시설 (청자편) 청자잔 청자완	여의문백상감 상감청자 상감청자대접	.	읍성북쪽
성건동677-116	화문벼루	.	청자(양질) 청자병	암거배수시설 (2100×80 ~ 130×10 ~ 30cm) '土'명 암기와	.
성건동677-145	.	어골문 기와	석렬(순청자) 무문청자 사선문 기와	백자용기 분청사기	.
성건동42-1	벼루 (1줄횡침)	.	청자편2	長興庫銘 분청사기	.
성건동 배수펌프공사장	.	햇무리굽청자 완	청자완	분청사기	왕경 서편 읍성 서문 밖
동부동131-9	.	.	어린문 기와	한탄	.
동부동159	.	.	어린문 기와	일승정 터	.
동부동169-1 ³⁵⁾	도로 배수로 연못 석렬	.	어린문 기와	康熙3年銘瓦	.

고려중기 경주의 문물 이전과 景觀

유적지	시기				비고
	신라	고려전기	고려중기	조선	
북부동116-3	·	·	·	비보수	·
북부동	·	·	·	집경전구기	·
화천리 ³⁶⁾	·	開元通寶 崇寧重寶 熙寧重寶	청자팔각접시 청자대접 분묘 28 요갱(13~14c)	·	·
방내리 ³⁷⁾	석실 석곽묘 6c후반~7C	·	녹청자대접	·	·
경마장부지 ³⁸⁾ 물천리	가마터,노지 석곽묘18 석실묘5 토광묘23	·	토광묘1	민묘 다수	·

- 2) 경주문화재연구소, 1996, 『신라왕경유적 발굴조사』.
- 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 『신라왕경 SIEI·SOEI 유적』.
- 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경주 황룡사연구소 건립예정부지 내 유적발굴조사 보고서』.
- 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8, 『경주 구황동 880-1·6번지』.
- 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월성해자발굴조사보고서』 II.
- 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0, 『월성해자출토 발굴조사보고서』 I.
- 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 『월성지표조사보고서』.
- 9) 경주문화재연구소, 1995, 『신라왕경유적 발굴조사』.
- 1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0, 『경주 동천동696-2번지 유적 공동주택 신축부지』.
- 11) 경주문화재연구소, 1997, 『동천동 789-10번지』.
- 12) 영남문화재연구원, 2007, 『경주 동천동 793번지』.
- 13)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08, 『왕경유적』 VIII.
- 1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경주 황성동950-1·7번지 공동주택 신축부지 발굴조사보고서』.
- 15)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08, 『왕경유적』 V.
- 16)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09, 『왕경유적』 IX.
- 17) 경주문화재연구소, 1999, 「인왕동 556번지」 『연보』 19.
- 18) 국립경주박물관, 2002, 『경주박물관부지 발굴조사보고서』.
- 19) 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경주 서악동 256번지』.
- 20)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08, 『경주의 문화유적』 II.
- 21)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09, 『경주의 문화유적』 V.
- 2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7, 『왕경지구 내 가스관 매설지 발굴조사 보고서』.

별첨 【표 2】 경주 왕경지구 내 도로유적³⁹⁾

유적지구	도로	폭/길이	진행방향	초축 시기	사용연대
구황동왕경유적	북편동서도로	5.5-7.5/?	n-98°-E	·	고려시대 이후
SIEI지구	남편동서도로	15/?	n-98°-E	·	고려시대 이후
	서편남북도로	12~12.5/?	N-80°-E	6세기중반	·
	동편남북도로	5.5/1300	N-80°-E	6세기중반 이후	·
황룡사지	남외랑 동서도로	13.5/?	·	·	·
	남외곽 동서도로	15.5/?	·	·	고려

- 23)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0, 『경주시 사정동 51-4번지 주유소부지 내 유적』.
- 24)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1, 『경주시 사정동 459-5번지 수습발굴조사보고서』.
- 25) 신라문화연구원, 2008, 『왕경유적』.
- 26) 영남문화재연구원, 2003, 『경주시 황오동118-6번지』.
- 2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3, 『경주 황남동 신라건물지 194-11·12번지 대릉원 화장실 신축부지』.
- 2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경주 황남동 대형건물지- 황남동 123-2번지』.
- 29)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경주시 노서동 160-11번지』.
- 3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3, 『경주 서부동 19번지 유적』.
- 31) 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경주시 서부동 4-1번지 유적』.
- 32)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7, 『왕경유적1- 경주시 성동동 273-1, 298번지 유적』.
- 33) 중앙문화연구원, 2006, 『경주 성건동 하구리유적』.
- 34)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08, 『왕경유적』 VII.
- 3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경주시 동부동 169-1번지』.
- 36) 영남문화재연구원, 2010, 『경주 화천리 산214-1번지 유적』.
- 37) 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경주 방내리 고분군』.
- 3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9, 『경주 경마장에정부지 시굴조사보고서』.
- 39) 별첨 【표 2】 ‘경주 왕경지구 내 도로유적’은 경주지역 발굴보고서 및 류환성, 2006, 「경주 성동동 김용탁 산부인과 병원 신축부지 내 유적발굴조사 개요」 『서라벌고고』의 【표】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고려중기 경주의 邑基 이전과 景觀

유적지구	도로	폭/길이	진행방향	초축 시기	사용연대
황룡사지	동외곽 남북도로	5.5/?	·	·	·
	동외곽 동서도로	5.5/?	·	·	·
	남외곽 남북도로	13/?	·	·	·
	서외곽 남북도로	9/?	·	·	·
분황사남쪽	동서도로	9/50	N-82-E	분황사 창건 전	·
황남동376	북쪽동서도로	0.7/18	·	6C후~ 8C후반	·
인왕동566	동서도로	9.2/23	N-91-E	5C말~6C초	·
	남북도로	10/7	N-1.5-E	6C초	·
월성석교 남편	남북도로	9/?	·	·	·
안압지 서편	도로	10/?	·	·	·
국립경주박물관 내 미술관 연결통로부지	동서도로	15~16/30	N-90-E	6C중후반	~조선
	남북도로	23~10/?	N-0-E	"	·
	동서(통로)	5/?	N-15-W	"	·
탑동772	추정 소로	·	·	6C후반~7C초	·
용강동원지 유적서편	남북도로	5.2/62.4	N-1-W	7C후반	·
황성초강당부지	동서도로	6.5/?	·	"	·
황성동537-2	동서도로	1.6/11.5	·	"	·
동천동7B-1	남북도로	6.5/82	N-20-E	"	·
	남북도로	6.5/25	N-20-E	"	·
	동서도로	5/25	N-92-E	"	·
	동서도로	6.5/75	N-92-E	"	·

사학연구 제106호(2012. 6)

유적지구	도로	폭/길이	진행방향	조축 시기	사용연대
동천동696-2	남북도로	7~16/40	N-20-E	7C중반이후	·
	동서도로	7~9/44	N-91-E	8C이후	·
황성동535-8	동서도로	5.2/13	N-8-E	통신~조선	·
황성동950-1.7	남북도로	10.9/19	N-12-E	통신~조선	·
황성동제철유적	남북도로	6.5/15	·	통신이후	·
황성동535-18	동서도로	1.88/14.5	E-4-N	통신~조선	·
황성동590	남북도로	·	N-78-E	통신	·
성건동 배수펌프장부지	동서도로	8.6/21	N-99-E	삼국~조선	·
	남북도로	3.5~20/?	N-11-E	삼국~조선	·
성동동143-7.10	남북도로	8/19	N-2.5-E	8C후반이후	·
서부동19	동서도로	4/130	N-97-E	8C전반	~조선
	남북도로1	7/50	N-7-E	"	·
	남북도로2	12.5/?	N-70-E	"	·
성동동북문로	동서도로	9/70	N-99-E	8C후반	·
	남북도로	11/8	N-7-E	"	·
성동동 세무서신축부지	남북도로	4.8+@/98	N-30-E	8C중반이후	·
	동서도로	4.4+@/5	N-75-W	"	·
노서동181-24 숙박시설신축지	동서도로	2.4+@/19.5	N-79-E	8C후반	·
	남북도로	2.2+@/19	N-1-W	"	·
동천동774	남북도로	10.5/21.5	N-7-E	8-9C	·
월성해자	남북도로	9/35	N-50-E	"	·
황룡사지서편	남북도로	7이상/?	·	"	·

고려중기 경주의 邑基 이전과 景觀

유적지구	도로	폭/길이	진행방향	초축 시기	사용연대
황오동3-7	남북	1.98/2.62	N-50-W	"	·
	동서도로	6.12/6.6	N-96-E	"	·
전량지서편	남북도로	13.4/?	N-0-E	"	·
구황동원지	동서도로	1.4-2.5/?	N-87.5-E	9C이후	·
	남북도로	·	·	"	·
봉황로	남북도로	2.0+@/23.5	N-78-W	"	·
태종로	동서도로	·	"	"	·
침성로확·포장 공사구간	동서도로	·	"	"	·
황성동949-1	남북도로	4.5/6	N-16-E	"	·
황성동 강변로	남북도로	3/6	N-13-E	"	~조선
황성동535-8	·	4/?	·	·	~조선 (1차 4m, 2차 2.6m)
인왕동412	동서도로	8.4/9	N-72-E	"	·
노서동182-24	동서도로	2.4+@/19.5	N-79-E	"	·
노서동178-32	동서도로	6.8+@/28.2		"	·
월성북-침성대	남북도로	1.1/9	·	·	·
충효동640	·	1.7~1.8/?	·	고려중기	비포장 바퀴흔
충효동100-14	·	·	충효동640 방향	"	생산장 통행로
덕천리	·	·	·	고려중기	청자
탑동640-4	동서도로	·	·	고려시대	·
황오동소방도로	·	6/?	·	·	~조선
인왕동하수도	·	6.7/?	·	·	~조선

별첨 【표 3】 경주지역의 마을 · 고갯길(41)

	마을	비고	시기		마을	비고	시기
	· 月城西里 ⁴²⁾	시림	신라	불국동	시래동	銘岩村	조선
	· 避村 ⁴³⁾	남산동록	"		九政洞	장터마을	고려
	· 毛火村 ⁴⁴⁾	경주 동남	"		조양동	성말랑고래	신라
	· 禹金里 ⁴⁵⁾	민장사 옆	"			朝驛 역마을	조선
	· 馬等烏村 ⁴⁶⁾	남산남쪽	"		동천동	알천수개기	조선 전기
	· 暗谷村 ⁴⁷⁾	동북20리	"			관창골	?
	· 赤善村 ⁴⁸⁾	안강현 적곡촌	"			박바우마을	고려
	· 發知村 ⁴⁹⁾	자인현	"			아리랑고개	고려
	· 萬善北里 ⁵⁰⁾	금강산道場寺	"			지수골(紙所)	조선
	· 銀川洞 ⁵¹⁾	남간사 동쪽	"			오깃마을 (옹기집)	조선
	· 芬皇西里 ⁵²⁾	황룡사 서거방	"	조전마을		?	
	· 芬皇東里 ⁵³⁾	분황사 동쪽	"	서악동		광풍정터	우왕 姜淮伯
	· 月明里 ⁵⁴⁾	사천왕사 주변	"		노하마을	·	?
	· 俗休里 ⁵⁵⁾	단속사, 小花里	"	충효동	也尺	창들	신라
	· 避里村 ⁵⁶⁾	남산 동록	"		才洞	칭자장인	고려
	· 浮雲村 ⁵⁷⁾	牟梁里	"		大谷	襄載源	조선 전기
	· 品上村 ⁵⁸⁾	富山, 府西30	"		하마마을	하마비	조선 중기
	· 雨微洞 ⁵⁹⁾	모량천	조선 전기		능남마을	김유신장군묘	?
	· 達川洞 ⁶⁰⁾	모량천	신라		대문계	양재 · 현구면, 馬場	조선
	· 仙童洞 ⁶¹⁾	서천 부근	신라		忠孝里	이중승 시묘	조선

고려중기 경주의 邑基 이전과 景觀

	마을	비고	시기		마을	비고	시기
	· 道伊洞 ⁶²⁾	서천 부근	조선전기	효현동	소티고개	건천·아화·영천山內場, 소	?
	· 義谷村 ⁶³⁾	·	조선전기		애공다리	애공랑	?
	· 孤店村 ⁶⁴⁾	잉보역, 府南50	조선		외와마을	仙道洞	?
	· 月南里 ⁶⁵⁾	혁거세묘, 府南	조선전기	성진동	남성진	·	조선
	· 芬南里 ⁶⁶⁾	효소왕릉, 府東	신라		북성진	·	조선
	· 都只谷里 ⁶⁷⁾	성덕왕릉, 府東	신라		영마을	·	조선
	· 西岳里 ⁶⁸⁾	김유신묘	신라		사직단터	·	조선
	· 府南村 ⁶⁹⁾	·	신라		삼랑사터	·	신라
	· 月南村 ⁷⁰⁾	·	고려		성밖에말	·	조선
	· 楊山村 ⁷¹⁾	·	고려		영말마을	·	조선
	· 高墟村 ⁷²⁾	남산부 구량벌	고려		조장평	·	조선
	· 南村 ⁷³⁾	·	고려		진영터	·	조선
	· 茂山大樹村 ⁷⁴⁾	·	고려		성동동	北亭里	·
· 朴谷村 ⁷⁵⁾	·	고려	在里	·		조선	
· 谷等村 ⁷⁶⁾	·	고려	市隱	·		조선	
			진돌배기	신라진, 병기고		신라	
용강동 ⁷⁷⁾	광준마을	광제원	조선	월성동	교동	국학, 향교	신라
	서당미기말	서낭당, 新里	조선		사마소	재매정, 문천	조선
	· 僧三村	·	고려	사정동	뒷사정	·	조선 후기
	· 맛들터	· 말 방목장	?		구들들	귀교복	신라

	마을	비고	시기		마을	비고	시기
구황동	구역	= 구기리 구기	조선 전기	사정동	사정장터	.	조선
	사리	백률사 서편→	조선 중기		수랏길	국당마을 동쪽길	?
	새터	구황동 신리	조선		효문리	남문 밖	조선
남산동	순지촌	= 남촌	고려	효자리	효자 손시양	고려	
	안말	= 피리촌	신라	도초마을	.	조선 초기	
도지동	능곡	현강왕 능 조성	신라	울동	두대리	신라 장씨성	신라
	대기리	효소왕	신라		배바우말	.	조선
	도지	동방곡	신라		선두마을	울동 · 서악동	?
	삼거리	=삼가리	?		울리	.	신라
동방동	장골	.	조선	말방테들	이제못의 동	신라	
	탑골	.	신라	죽라리	견훤, 죽라	고려	
배반동	갯마을	= 浦里	조선	성두마을	서악동	신라	
	長堤洞	혁거세 별지지	신라	선두마을	.	?	
	천왕끝마을	사천왕사 옆	?	탑동	월남리	남간사	신라
	맨달이고개	갯마을서북쪽	조선		탑리	담엄사	신라
	선창거랑	명활산 · 남천거랑	조선		장창골	남산신성	신라
	와곡	.	신라		좌창터	해목령 아래	신라
보문동	남촌	.	조선	태로원	귀들 동쪽	신라	
	습비촌	.	신라	감포읍	고대안말	경주김씨 세거 조선 후기	

고려중기 경주의 邑基 이전과 景觀

	마을	비고	시기		마을	비고	시기
인왕동	사애각터	공양왕 강희백	고려	감포읍	대안마을	김현배	조선 후기
	비석거리	·	조선		사무골	김해김씨 세거	조선 후기
	동정터	공민왕 전록생	고려		감포마을	감은사포구 옆	조선 초기
	솔랫골*	왕정골남산성	조선		나정리	전촌남쪽, 武庫	신라
	왕정골	·	고려		창리	만파식적	신라
평안동	늦점골	·	조선	내남면	대본리	대본마을	신라
	죽리	·	조선		五柳里	선창마을	조선 중기
	황촌	·	고려		蓮洞	고려他姓이주	고려
	아리랑고개	주점	조선		五柳골	천씨	조선 후기
	지영다리터	승혜전 통행	조선		尺沙골	밀양박씨	조선 후기
황성동	갓뒤마을	고성숲 뒷마을	조선	典洞里	김해김씨	신라	
	고성	독산	?	典村里	성두마을	신라	
	유림마을	·	고려	八助里	·	?	
	옛질터	황성 경계	신라	노곡리	노곡역마을	신라	
	장질터	유림~남장마을	조선	곽동	=미역마을	신라	
황오동	팍풍길터	우마차로	?	백운리	·	신라	
	황촌	·	조선	석수암터	·	신라	
탑정동	오리장배미	·	조선	윗골	·	?	
	배리	삼릉 서남쪽	신라	덕천리	천주암터	신라	
	포석마을	교리 최부자	조선 후기		戴司馬洞	신라	
도디기못말	창림사터 서쪽	?	골안마을		신라		

	마을	비고	시기		마을	비고	시기	
건 천 읍	작성터	·	신라	안 강 읍	안강	죽촌	?	
	금장원터	·	신라			못안마을	신라	
	대곡리	·	조선 중기			갑산리절터	신라	
	방내리	고양터마을	신라			시티재고개	고려	
		馬轉峴, 馬岩	?			야전마을	?	
	송선리	창터말, 달래창	?		노당리	점곡	신라	
		우징동	신라			점동	신라	
		절골	조선 후기			화산골 한지	?	
		북문거리마을	조선		사방리	옥골(獄洞)	신라	
		절골마을	?		안강리	陵治道	?	
		점뱅이말(鐵店)	조선		양월리	새각단마을	신라	
	용명리	백자가마터	조선			창말	신라	
	산 내 면	감산리	왕자동		신라	옥산리	경역터	조선
			원골		조선		남천사터	신라
내일리		守義洞	신라	육통리	못밑 마을	신라		
대현리		시다마을	고려		원당	고려		
鳴螺里			신라		회화나무말	고려		
		석낭골	조선	존리	존제선생	고려		
의곡리	의곡마을	조선 중기	하곡리	주막마을	조선			

고려중기 경주의 邑基 이전과 景觀

	마을	비고	시기		마을	비고	시기
산내면	의곡리	사창마을	조선	서면	도계리	도계마을	고려
		역촌	조선			돛실	신라
괘릉리	원고개마을	신라	사라리		갠버불마을	고려	
구어리	驛村	조선			사라마을	고려	
냉천리	다리목거리길	조선			오통골	신라	
		혜리원터	신라		서오리	사랏골	?
녹동리	성밀마을	신라	서오, 선산박씨			고려	
	관문성터마을	신라	아화리		시뭇골	?	
	달밭골	?			아화	?	
	덕거리마을	?			관골	조선	
말방리	탑리(송복사)	신라			오룡골	?	
모화리	唐地	신라	館里村		?		
	밭가분데	신라	운대리		부운리	신라	
	원터	조선			孝處洞	조선	
문산리	성만리	?	천촌리		주삿골	조선	
	鳴村	신라	양북면	송전리	사창마을(활)	조선	
방어리	둔전마을	신라		안동리	세수방	신라	
	芳旨마을	신라			외세골 (기림사 기와)	신라	
	원골	조선		성현마을	신라		
입실리	冠巨里 (도성 관문)	신라		어일리	술래골(대로)	신라	
	土店(달천,농구)	?			조피막(주점)	조선	
					큰말웅굴 石井	신라	

	마을	비고	시기		마을	비고	시기
외동읍		등디잇재(왜구)	신라	양북면	용당리	용담마을	신라
		입실마을 (불국사 ~ 원원사 통로)	신라			원당(진홀고)	?
		흰디깃재(백토)	조선		입천리	安店(주점) (외동·울산)	?
현곡면	금장리	가삼동(용기골)	조선	천북면	갈곡리	갈곡마을 (칠명골 개간)	신라
		금장마을	신라			남아골(武處)	신라
		금장나리터 (渡船場)	조선		덕산리	덕산마을	조선
	나원리	계탑마을(석탑)	신라			매남이재 (덕산·신당)	?
		나원(배씨 마을)	?		물천리	玉洞	신라
		시탕갯(숫마을)	?			용락	신라
		지초골마을	?			대문재고개 (장기·경주)	조선
	남사리	남사리	신라		승삼고개 (승삼촌)	신라	
		북골(손순,鐘洞)	신라		성지리	소리	신라
	상구리	가막골(궁성 말)	신라			중방 (제방자연마을)	?
		상구(경주김씨)	신라		신당리	신당	신라
	소현리	손우정마을 (손순)	신라			利盤堤 (1029년 축조, 神堂北淵)	고려
		말구불계 (현곡·금장)	조선		오야리	외실마을	신라
		점골(鐵店)	조선			나리	신라
		정골(사기 번조)	조선		화산리	점각단	조선
오류리	점랑부현실마을		화산촌원	조선			
	청정끝테마을 (경주시내 장)	조선					

- 41) 별첨 [표 3] ‘경주지역의 마을·고갯길’은 『三國遺事』, 『韓國金石全文』, 『高麗史』, 『東京雜記』, 『慶州邑誌』, 『慶州風物地理誌』를 참고로 하여 필자가 재구성하였다.
- 42) 『三國遺事』 권1, 紀異1, 金闕智.
- 43) 『三國遺事』 권1, 紀異1, 射琴匣.
- 44) 『三國遺事』 권2, 紀異2, 孝成王.
- 45) 『三國遺事』 권3, 塔像4, 敏藏寺.
- 46) 『三國遺事』 권3, 塔像4, 天龍寺.
- 47) 『三國遺事』 권3, 塔像4, 靈藏寺 彌陀殿.
- 48) 『三國遺事』 권4, 義解5, 二惠同塵.
- 49) 『三國遺事』 권4, 義解5, 元曉不霸.
- 50) 『三國遺事』 권4, 義解5, 蛇福不言.
- 51) 『三國遺事』 권5, 神呪6, 惠通降龍.
- 52) 『三國遺事』 권5, 感通7, 廣德嚴莊.
- 53) 『三國遺事』 권5, 孝善9, 貧女養母.
- 54) 『三國遺事』 권5, 感通7, 月明師兜率歌.
- 55) 『三國遺事』 권5, 避隱8, 信忠掛冠.
- 56) 『三國遺事』 권5, 避隱8, 念佛寺.
- 57) 『三國遺事』 권5, 孝善9, 大成孝二世父母.
- 58) 『東京雜記』 권1, 山川.
- 59) 『東京雜記』 권1, 山川.
- 60) 『東京雜記』 권1, 山川.
- 61) 『東京雜記』 권1, 山川.
- 62) 『東京雜記』 권1, 山川.
- 63) 『東京雜記』 권1, 勝地.
- 64) 『東京雜記』 권1, 驛院.
- 65) 『東京雜記』 권1, 祠廟.
- 66) 『東京雜記』 권1, 陵墓.
- 67) 『東京雜記』 권1, 陵墓.
- 68) 『東京雜記』 권1, 陵墓.
- 69) 『東京雜記』 권1, 古蹟.
- 70) 『東京雜記』 권2, 古蹟.
- 71) 『東京雜記』 권2, 古蹟.
- 72) 『東京雜記』 권2, 古蹟.
- 73) 『東京雜記』 권2, 古蹟.
- 74) 『東京雜記』 권2, 古蹟.
- 75) 『東京雜記』 권2, 古蹟.
- 76) 『東京雜記』 권2, 古蹟.
- 77) 이하는 『慶州風物地理誌』의 옛 지명 관련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地理志』, 『東京雜記』, 『輿誌圖書』, 『慶州邑誌』, 『慶州先生案』, 『甫閑集』, 『破閑集』, 『鷄林類事』, 『續東文選』, 『東文選』, 『續東文選』, 『陽村先生文集』, 『息山集』

2. 논저

김기문 편저, 2006, 『慶州風物地理誌』, 경주문화원
구산우, 2003, 『高麗前期 鄉村支配體制 研究』, 혜안
권도홍, 1990, 『벼루』, 대원사
김윤곤, 2001, 『한국중세 영남불교의 이해』, 영남대출판부
김창석, 2004, 『삼국 및 통일신라의 유통체계 연구』, 일조각
박종진, 2000,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출판부
安秉佑, 2002, 『高麗前期의 財政構造』, 서울대출판부
이기봉, 2008, 『조선의 도시, 권위와 상징의 공간-한국적 전통도시 경관의 원형 탐색』, 새문사
이인철, 1993,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전덕재, 2009, 『신라왕경의 역사』, 새문사
韓基汶, 1998,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今西龍, 1933, 『新羅史研究』, 近江書店
伊藤正敏, 2000, 『日本の中世寺院』, 吉川弘文館
中世都市研究會 編, 2000, 『都市の求心力-城·館·寺』, 中世都市研究7, 新人物往來社

3. 논문

- 고경희, 1994, 「新羅 月池 出土 在銘遺物에 대한 銘文 研究」, 동아대 석사논문
- 구산우, 2002, 「고려시기 계수관의 지방행정 기능과 위상」 『역사와 현실』 43
- 金琪燮, 2006, 「高麗 太祖代 군현 개편의 과정과 그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21
- 金皓東, 1982, 「高麗 武臣執權 下에서의 慶州民의 動態와 新羅復興運動」 『民族文化論叢』 22
- 김갑동, 1994, 「신라의 멸망과 경주세력의 동향」 『新羅文化』 10·11
- 김광철, 2008, 「고려후기 밀양지역 사회의 변동과 治所 이동」 『석당논총』 41
- 김덕현, 2004, 「경상도 읍치경관 연구서설」 『문화역사지리』 22
- 김윤근, 2000, 「고려시대 慶尙道 지역의 사원과 불교문화」 『한국중세사연구』 9
- 김창석, 2004, 「고려전기 虛市의 성립과 그 성격」 『역사와현실』 53
- 김현규, 2007, 「조선시대의 지방도시 읍치의 성립과 계획원리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51
- 도도로키 히로시, 2005, 「조선시대 읍치의 영역성에 관한 일고찰-경상도를 사례로」 『지리학연구』 39-1
- 박방룡, 2006, 「신라왕경의 구조와 체계-新羅王京과 流通」 『新羅文化學術制論文集』 27
- 朴龍雲, 1997, 「고려전기 慶州의 위상에 대한 고찰」 『慶州史學』 16
- 박종진, 2005, 「고려시기 계수관의 기능과 위상」 『역사와 현실』 56
- 서병국, 2011, 「신라왕경의 교량과 도시계획-경주 남천의 교량지와 신라왕경」 『경주문화』 17

- 윤경진, 2000, 「高麗 郡縣制의 構造와 運營」, 서울대 박사논문
- 尹京鎭, 2001, 「慶州戶長先生案-舊案(慶州司首戶長行案)의 분석-1281년~1445년 부분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19
- 이기봉, 2009, 「조선적 지방도시로서의 권위 표현과 읍치숲」 『문화역사지리』 21-3
- 이기봉·홍금수, 2000, 「조선시대 경상도 읍치 입지의 다양성과 전형성-고려말 이후 입지경향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3
- 이재환, 2011, 「傳仁容寺址 출토 ‘龍王’ 목간과 우물·연못에서의 제사의식」 『목간과 문자연구』 6
- 정요근, 2008,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研究」, 서울대박사논문
- _____, 2011, 「여말선초 군현간 합병·통합과 新邑治의 입지 경향」 『역사와 현실』 80
- 鄭銀禎, 2009, 「고려시대 開京의 도시변화와 京畿制의 추이」, 부산대 박사논문
- _____, 2011, 「고려전기 慶州圈域 정비와 邑內·外 분리」 『韓國史研究』 154).
- 채무기, 2002, 「仁容寺址 三層石塔과 寺名의 傳承」 『慶州文化論叢』 5
- 채웅석, 1997, 「고려후기 유통경제의 조건과 양상」 『한국고대 중세의 지배체제와 농민』, 김용섭교수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 최원석, 2007, 「조선시대 지방도시의 풍수적 입지분석과 경관유형-경상도 71개 읍치를 대상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2-4
- 최원석, 1996, 「慶州邑藪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국토건축학회지』 국토계획 31-3
- 최원석, 2003, 「경상도 邑治 景觀의 鎭山에 관한 고찰」 『문화역사지리』 21
- 최종석, 2005, 「고려시기 치소성의 분포와 공간적 특징」 『역사교육』 95

- 최종석, 2007, 「고려시대 치소성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 한기문, 2006, 「高麗時代 裨補寺社の 成立과 運用」 『한국중세사연구』 21
- _____, 2011, 「고려시대 資福寺의 성립과 존재양상」 『민족문화논총』 49
- 韓三建, 1993, 「韓國における 邑城空間の變容に關する研究」, 京都大學 博士論文
- 韓禎訓, 2009, 「高麗時代 交通과 租稅運送體系 研究」, 부산대박사논문
- 황보은숙, 2008, 「신라왕경의 도시적 발달」 『新羅文化』 32

Abstract

The Eupgi(邑基) Relocation and Townscape in Gyeongju in the middle of the Goryeo Dynasty

Jeong - Eun Jeong

In the third year of King Hyeonjong, a castle f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was built and a new Eupgi was constructed in the Geumseong districts of Gyeongju. The government office remains in the former part of the Goryeo Dynasty were excavated in the whole area of Wolseong in Gyeongju, and the subsequent relics were unearthed in the Eupseong districts.

Since 1012, however, the government-controlled market and granary in the whole area of Wolseong had been continuously used until the construction of the new Eupgi was completed.

The townscape of the new Eupgi had been controlled at national level since the reign of King Munjong. And Gyeongjudo(慶州道), an outer arterial road, was repaired. Through the arrangement of Jaboksa(資福寺) and the installation of Gaeksa(客舍), Gyeongju began to take the shape of a provincial town.

The new Eupgi was located to the northwest, and its newly-organized villages stood close together in the northwestern area of Gyeongju, in the light of the connection to Gaegyeong. Because the idea of geomancy such as Josan(朝山) Jusan(主山) wasn't settled down until then.

The narrow path in the new Eupgi was constructed for the sake of the close linkage with the main streets in the old villages. Gyeongju took the typical

고려중기 경주의 읍基 이전과 景觀

shape as a provincial town by the government-controlled townscape improvement and other small change in the mid-Goryeo Dynasty.

Keywords : Eupgi(邑基) Jaboksa(資福寺), Gaeksa(客舍), Narrow Path(小路), Townscape(景觀)